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미셸 우 보스톤 광역구 시의원이 6월 27일 관심있는 과학자 연맹(UCS)이 차이나타운이 매사추세츠 내에서 가장 미세먼제(PM2)가 심하다는 기자회견장에서 시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이같은 공기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미셸 우 의원은 연일 보스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가장 강력한 보스톤 시장 도전자로 떠올랐다

미셸 우 의원 두드러진 활약, 보스톤 시장 도전?

연일 헤드라인 장식, 보스톤 글로브 시장 후보로 거론
글로브 여성 칼럼니스트 "도전해야 역사가 된다" 격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최근들어 보스톤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높이며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는 미셸 우(Michelle Wu, 34) 보스톤 광역구 시의원에 대해 보스톤 글로브가 시장 후보 가능성을 거론했다. 마티 월시 보스톤 시장의 유력한 경쟁 상대로 떠오른 것이

다. 최근 미셸 우 시의원 집중하고 있는 것은 MBTA 요금인상 반대 운동이다. 우 시의원은 MBTA 요금인상이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통근에 부담을 주고 대중교통 이용 의지를 꺾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인상 반대운동을 주도 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MBTA가 잇따른 탈선사고를 일으키고 더딘 복구작업으로 시민들의 원성을 사면서 MBTA 운영방식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정치인이 바로 우 시의원이다. 미셸 우는 이 같은 문제를 제기 시에는 가장 먼저 풀뿌리 조직들의 반대의견을 통합하고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이슈를 끌고가며 이후 보스톤 글로브에 문제의 핵 >>7면으로 계속

트럼프 행정부 '시민권 질문' 빼고 센서스 설문지 인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센서스에서 시민권 질문 문항을 포함시키지 않는 채 설문지 인쇄에 돌입했다. 그동안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시민권 질문 삽입을 추진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정책을 포기하고 있는 첫번째 조치로 보인다.

국무부 대변인은 2일 2020 센서스 설문지를 시민권 질문을 제외한 상태에서 인쇄를 시작했음을 확인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 대법원의 판결이후 센서스를 늦출 수 있는 온갖 방법을 추구할 것이라고 했던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주 5대4의 판결에서 미 상무부 윌버 로스 장관의 시민권 질문 삽입 논리가 "부자연스럽다"며 진정한 의도와 증거가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 적합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었다

그동안 이민단체와 주요 진보진영 주법무 장관들은 시민권 질문 삽 >>5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IACE TRAVEL
상업시간 연장안내

OPEN 9AM CLOSE 9PM

866.619.4223 월요일-금요일 영외
평일출발 당일

비수기 출발
인천행직항공사권
\$1319~

일본 에어텔, 레일패스
미세부 특가기차투어
고국방문 패키지
일본아시아 여행기차투어

Newstar JB Realty in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하겠습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Korea licensed
Mu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21 CENTURY 21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실껏 도와드리겠습니다
CENTURY 21
REALTOR® 아일린 박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우변에 위치한 한인회관에 걸린 역대 한인회장들의 사진. 한인회는 한인회장을 초청, 간담회를 11일 가질 예정이다

한인회 "역대 한인회장 초청" 간담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가칭 매사추세츠 한인회(회장 장우석)는 역대 한인회장을 역임했던 한인회 고문들을 우변소재 한인회관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한인회는 7월 11일 목요일 저녁 6시 역대 한인회장을 초청해 간담회 형식으로 한인회장들의 경험을 듣고 한인사회의 결속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제 40대 한인회장인 장우석 회장은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해주신 역대 한인회장을 모시고 한인회장님들의 경험과 지혜를 논하고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이라고 말하고 “한인사회를 더 결속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한인회 7월 17일 임시총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가칭 매사추세츠 한인회(장우석 회장)는 노스 앤도버에 위치한 다문화선교회에서 7월 17일 수요일 11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한인회는 이날 임시 총회를 통해 기존의 “보스톤 한인회” 를 “매사추세츠 한인회” 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한인회측은 보스톤 한인회가 너무 한정적이며 매사추세츠 전체를 포용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매사추세츠 한인회” 로 명칭을 변

경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바 있다. 한인회측에 의거하면 공식 명칭 변경은 한인회 총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한인회측은 이날 노인회 사랑방 모임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60명 총회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는 판단하에 간단한 변경절차를 통해 이를 승인받을 계획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매사추세츠서 저승가는 비용 늘었다

주정부, 화장시 유가족 접견수수료 두배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검시관실이 시신의 화장 직전 유가족 접견 비용을 두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올해 8월부터 실시될 이번 계획은 현재의 화장 직전 유가족 접견 수수료를 \$100에서 \$200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유가족 접견 추정치는 1년에 약 3만여건이며 검시관실은 현재 약 3백만불의 수수료보다 두배에 달하는 6백만불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검시관실은 이 같은 인상 계획을 주 의회에 통보했다. 수수료는 의회의 법 변경없이 인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장의 업계 관계자들은 안장 대신 화장을 선택하는 유가족들이 증가 추세에 있어서 무려 100% 인상은 추가 세금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화장전 시신접견 수는 지난 4년동안 25%가 들어 2018년에는 29200건이 넘어섰다. 따라서 추가 \$100부과는 이미 장례진행으로 수천달러를 사용한 유가족에게 추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인트 피에레 패뉴프 퓨터럴 채플의 폴 패뉴프 씨는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또다른 큰 부담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주 관계자들은 접견비가 지난 10년간 그대

로 유지되고 있으며 추가 수입은 다양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시관의 추가고용, 케이프코드 검시소의 운영 일수를 주 5일에서 7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새로운 포털 웹사이트를 만들어 장의 사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올 가을 웨스트필드에 1천5백만불짜리 시설을 완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홀요크의 시설도 24시간 체제로 가동할 방침이다.

검시관실은 오는 7월 19일 윈 애쉬버튼 플레이스(One Ashburton Place)에서 공청회를 갖고 최종 수수료 인상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주검시관실은 이미 2년전보다 2백만불 예산이 증가된 1천2백만불의 예산을 올 가을 배정받게 된다.

한 장의업계 관계자는 검시관실이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올해 흑자를 기록한 세수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코 일반 주민들에게 더 돈을 내게 하지 말아야 한다” 는 것이다. 주정부는 지난 5월까지 9억5천2백만불의 세금을 더 거둬들였다.

editor@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FT 미국 경제 최장기 호황중, 그런데 체감경기는 왜?

파이낸셜 타임스, 경기 성장 121개월째 진입
1991년 3월부터 2001년 3월 황금기 추월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믿거나 말거나 미국 경제가 지난 1854년 이래 최장기간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최근 보도했다. 그러나 체감 경기는 과거 호황기에 비해 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FT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황금기(Golden Era)로 불리는 지난 1991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시기를 이미 추월해 성장 121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유로존 위기와 개발도상국들의 격변 등 불안한 국제 정세 및 미중 관세 전쟁을 필두로 하는 무역 전쟁 등의 악재들도 미국 경제 장기 호황을 가로막지는 못했다.

통상 경기침체(Recession)는 국내 총생산(GDP) 지수가 연속 2분기 감소하면 침체로 접어들었다고 정의를 내리나 전국경제연구소(NBER)는 더욱 광범위한 질적 정의를 이용해 현재 미국 경기 확장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시작됐다고 간주하고 있다.

NBER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이달 들어서 확장 121개월째로 접어든 것으로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경제 확장 평균 기간의 2배가 넘는 기간 동안 연속 성장하고 있다. 인베스코(Invesco)의 브라이언 레빗 전략분석가는 “이 기간은 비틀즈가 함께 활동한 시간보다 더 길며 180부작의 NBC 드라마 사인필드 방영 기간보다도 길다. 또한 인스타그램보다도 더 오래됐다”고 실감나게 표현했다.

올해 들어서 미국 경제는 1분기에 연간 환산치 3.2% 성장했으며 애플렌타 연준에 따르면 현재도 약 1.5%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 경제 하강에 대한 두려움이 투자가들과 경제학자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의 임시 휴전도 경제 성장이 종료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없애지 못하고 있다.

지난 주말 G20 정상회담 이후 증시는 소폭 상승했으나 이후 보험세를 보



이고 있다. 채권 시장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없었다. 모건 스탠리의 체탄 아야 수석 경제학자는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비즈니스 자신감 및 기업 투자는 2년래 가장 저하됐다. 글로벌 경제 성장도 향후 더욱 더디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 침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경제 호황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호황을 체감하기는 어렵다.

RBC 캐피탈 마켓에 따르면 현재 미국 총생산(GDP)은 금융위기 이전 정점에 올랐을 때보다 약 20% 성장에 그치고 있다. 금융 위기 이후 회복 속도도 많이 약화됐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 1990년대 황금기 성장 시기의 미국 경제 규모는 경제 침체에 돌입하기 전 경제 정점 때보다 41% 성장했었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현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현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정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인 회원사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SATPLUSTUTORING.COM
TEL: 781-398-1881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SAT Plus Summer Schedule 2019

July 2019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7/8 - 7/26	Mon-Fri
Chemistry(Preview)	1:00 PM - 3:00 PM	7/8 - 7/29	Mon/Wed/Fri
Biology(Preview)	4:00 PM - 6:00 PM	7/8 - 7/29	Mon/Wed/Fri

August 2019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8/5 - 8/23	Mon-Fri
SAT II Subject Tests (for August 24 test)	1:00 PM - 3:00 PM	8/5 - 8/23	Mon/Wed/Fri
	4:00 PM - 6:00 PM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올스톤 시계탑 아파트 온수 터져 200여 주민 야밤 대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소위 “시계탑 건물” 로 잘 알려진 올스톤 소재 15 노스비컨 아파트 콤플렉스에서 수도관이 터져 200여 주민이 대피하는 등 건물에 큰 손상을 입었다. 이 아파트에는 한인 학생 등이 상당수 거주하는 곳이어서 한인 학생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사건은 10층짜리인 건물의 5층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2일 밤 자정께 수도관을 교체하다 고압온수관을 터트리며 발생했다고 브라이언 알킨스 보스톤 소방서 대변인은 밝혔다. 이 주민은 이 과정에서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고압 온수관이 터지면서 온수는 빌딩 1층까지 흘러내렸다. 소방관들은 이 온수를 잡는데 성공했지만 빌딩에 입힌 손상으로 인해 주민들의 대피를 결정했다.

보스톤소방서의 트윗에 따르면 전체 거주민들은 안전하게 대피했으며 길 건너편의 잭슨 만 스쿨에 임시 쉼터를 마련해 거주케 했다. 3일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리를 떴고 임시 쉼터에는 5명 미만의 주민이 남아 있었다

알킨스에 따르면 모든 주민들은 거주 아파트의 수도 및 전기 시설이 복구



상당수 한인 유학생 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15 노스비컨 빌딩이 수도관 사고로 인해 전 주민이 야밤에 대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Boston Fire Department)

되고 시의 인스펙션을 받은 후까지 기다려 복귀해야 한다. 현재 보스톤 인스펙션디파트먼트는 건물을 점검중이다. 경찰은 3일 오후 1시 30분께 모든 점검을 마쳤으며 2시 이후에는 건물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7월 1일부터 MBTA 요금 인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대중교통 요금이 7월 1일부터 전체 요금 전반에 걸쳐 6% 인상된다.

찰리카드로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 우 현행 \$2.25에서 \$2.40으로 인상되며 월링크패스는 \$84.50에서 \$90로 인상된다. 커뮤터 레일의 경우, 존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요금인 존10의 경우 월 패스가 \$398에서 \$426으로 인상된다. 다만 버스 요금은 현재 요금이 유지된다.

MBTA 관계자들은 이번 요금 인상으로 연간 약 3천만불의 수익이 증대된다.

최근 MBTA는 그린라인 및 레드라인 탈선사고 그리고 레드라인 복

구작업이 오는 9월까지 늦어짐에 따라 이번 요금인상을 늦추라는 요구가 거세다.

법률준수재단의 스테이시 루빈 수석변호사는 “레드라인이 사람들 출퇴근의 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단순히 무감각한 것” 이라고 밝혔다.

MBTA 요금인상에 소리높여 반대해오던 미셸 우 시의원을 비롯한 약 12명의 주 및 시 정치인들은 요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반대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홍삼의 6대 효능

- ▶ 면역 증진
- ▶ 피로 개선
- ▶ 혈관 유상작용 및 혈압 조절
- ▶ 기억력 개선
- ▶ 장신체 도움
- ▶ 장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

Event 1

2+1

화애락 본 구입시
15포 추가증정

BEST DEAL

Event 2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Mild 100g 증정

BEST DEAL

전화주문 서비스

 무료배송, 다음날 관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다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김종효씨 3번 파3홀에서 생애 첫 홀인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김종효 씨(66)가 생애 첫 홀인원을 기록했다. 김 씨는 6월 9일 일요일 뉴햄프셔 소재 윈담컨트리클럽에서 김경한, 이병현, 그리고 성환달 씨와 함께 라운딩했다. 김 씨는 3번 파3홀에서 8번아이언으로 145야드거리의 홀에 한번에 볼을 집어넣는 홀인원의 행운을 누렸다. 김 씨는 이날 라운딩을 15오버파로 마감했다.



생애 첫 홀인원을 기록한 3번홀을 뒤에 두고 김종효씨가 엄지 척을 해보이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2019 한국 바로 알리기 에세이 공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교류처가 세계 속 한국 이미지를 개선하고 한국 이해자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2019 『내가 한국바로알리기의 주인공』 에세이를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외국에서 보는 한국의 이미지와 한국이해자료 활용이다. 외국에서 보는 한국의 이미지는 외국 교과서(미 교과서)나 인터넷에 나타난 한국 이미지나 한국 이미지 개선 방향에 대해 에세이를 작성하면 된다. 한국 이해자료의 활용 후기 또는 개발을 제안하는 에세이를 다뤄도 된다.

한국어는 물론 영어로도 작성이 가능하며 A4지 3장 분량의 에세이이면 된다. 신청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aks.ac.kr/>, <http://www.ikorea.ac.kr/korean/>) 등에서 다운받아 작성해 에세이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접수 마감은 7월 31일까지이다.

최우수상은 외교부 장관상과 90상당의 상품, 우수상은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30만원 상당의 상품 그리고 장려상 등이 수여된다.

문의는 highspirit@aks.ac.kr에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시민권 질문' 빼고 센서스 설문지 인쇄 시작

▶▶1면에 이어서

입이 이민자 및 소수민족의 센서스 참여를 낮추기 위한 것이며 대신 공화당 및 백인 유권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려는 진정한 의도를 감추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월버 상무부 장관은 시민권 질문 삽입이 소수민족 유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투표권리법 (Voting Rights Act)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다소 엉뚱한 논리를 내세웠었다.

미 헌법은 매 10년마다 센서스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연방법에 의해 센서스일자를 4월 1일로 정하고 있다. 행정부는 2020 센서스 설문지를 6월 30일까지 프린트 준비 완료해야 한다.

센서스국 수석과학자는 이 시민권 질문이 최소 2백만 가구 즉 약 6백 50만 인구의 센서스 응답을 줄일 것이라고 결론지었었다. 센서스국은 좀더 정확한 시민권 정보를 산출

하기 위해 기존의 정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미 헌법은 10년에 한번씩 센서스 또는 실제적 인구조사를 의무화 했지만 어떤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지침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센서스 조사원들은 1820년에는 시민권 소지 여부를 질문했지만 1950년 이래는 이 질문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재미과기협 회장단 이취임식 행사에 참석한 오준석 48대 회장(앞줄 가운데)과 신임 임원진

재미한인과기협 시카고 한미학술대회 개최

오준석 48대 회장단 출범,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 발전 도모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인 과학기술자협회(KSEA) 오준석 48대 신임회장단이 7월 1일 출범했다. 웨스턴 미시간 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오준석 KSEA 신임회장은 1년간의 임기 첫 행사 UKC 2019를 8월 14일-17일 시카고 오페라 소재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개최한다. UKC는 한.미 간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학술대회다.

KSEA 오준석 회장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 김명자 회장이 공동대회장을 맡고 있는 UKC 2019는 지난 1974년 처음 시작된 "과학기술 학술대회"를 모태로 매년 개최되며 올해로 32회를 맞이한다. UKC 2019에는 한국과 미국 등지에서 1,000명 이상의 과학기술자, 기업가, 정책결정자, 과학기술전공 학생들이 모여 첨단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학술토론과 정보교환을 통해 과학기술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인적 네트워크에 참여한다.

UKC 2019의 기조연설자로 201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라스 피터 한센 시카고대학 교수와 세계적 로봇공학자인 데니스 흥 UCLA 교수, 나노바이오융합기술 분야의 세계 최고 석학인 루크리 UC버클리 교수가 강연한다. UKC 2019에서는 기조연설 이외에도 스마트 과학, 스마트 공학, 스마트 보건의 3개 Smart Track

Session에서 최고의 권위자들이 강연하며, 13개 분과별 전문가 심포지엄을 비롯하여 미세먼지 포럼, 플라스틱 포럼 등 다양한 주제별 포럼도 개최된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기업가 정신 심포지엄 및 창업 경진대회도 개최된다.

한국과 미국의 대학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학 발전을 논의하는 "대학 리더십 포럼"에는 Rober Zimmer 시카고대 총장과 Timothy Killen 일리노이 대학 총장, 최문영 미주리 대학 총장이 참석하며, 한국측에서는 서울대 오세정 총장, 고려대 정진택 총장, 울산과기대 정무영 총장, 이화여대 김혜숙 총장, 광주과기원 김기선 총장, 아주대학교 박형주 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각 연구분야별 세션 참여를 위해 과학기술연구원 이병권 원장, 천문연구원 이형목 원장, 건설기술연구원 한승현 원장, 교통연구원 오재학 원장, 서울기술연구원 고인석 원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석재범 원장, 교통안전공단 강동수 원장 등이 참석하며 10여개의 기관 포럼에서는 한.미 간 공동연구 및 협력이 진행된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되는 "과학기술리더십 캠프"에는 한국우주과학청소년단(총재 서상기)의 후원으로 한국 고교생 10명이 참석하여 미주 지역 고교생들과 함께 노벨상 수상자와의

간담회와 현장 실험, 과학 뮤지컬, 대학과 연구소 방문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과총과 공동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전공 대학원생과 포스트닥을 대상으로 일주일 간 진행되는 "글로벌 차세대 과학기술리더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올해 두 번째로 마련된다.

올해의 해외과학인상으로는 이강원 로드아일랜드 대학 교수가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김영기 시카고대 교수와 명노상 UC Riverside 대학 교수가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과총 회장상을 수여한다. 이외에도 재미과기협은 올해의 젊은과학기술자로 선정된 김세권 미주리대 조교수, 이창환 퍼듀대 조교수에게 각각 1만달러씩의 그랜트를 수여하며 대학원생 장학생, 포스터 장학생, 지역사회 봉사상, 차세대 지도자 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올해의 최우수 협력기관상 수상 기관으로는 CJ 제일제당이 선정됐다.

한편, 1971년 워싱턴 DC에서 한인 유학생 69명으로 창설된 재미과기협은 48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초창기 한인 1세대에 이어 이제는 1.5세, 2세 한인과학기술자들이 대거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세대의 폭을 넓혀 가고 있다.

UKC 2019 안내: <http://ukc.ksea.org>
bostonkorean@hotmail.com



파파야 섭취 MA 주 5명 살모넬라균 감염

7월 4일 독립기념일 앞두고 동북부 62명 감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 5명을 포함 총 62명이 과일을 섭취한 후 살모넬라 균에 감염됐다고 미 질병통제센터(이하 CDC)가 밝혔다. 미 8개주에 걸친 살모넬라 감염으로 지금까지 23명은 입원치료를 받았다.

CDC는 특히 휴가 기간중에 파파야 또는 파파야가 포함된 과일 샐러드를 섭취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멕시코에서 수입한 파파야는 먹지도 팔지도 말아야 한다고 CDC는 지적했다. 현재 파파야 살모넬라 감염주는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커네티컷, 뉴욕, 뉴저지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주이다.

특히 뉴욕에서는 24명이 감염돼 최고를 기록했으며 커네티컷도 14명, 그리고 뉴저지 순이다. 이 감염은 지난 1월 14일부터 시작해 6월 8일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4월 이후 발병이 급증했다.

- 살모넬라균**
- 살모넬라에 감염된 환자들은 감염 음식물 섭취 후 12시간에서 72시간 내 설사, 고열, 복통 등의 증상이 발병한다.
 - 증상은 대부분 4-7일정도 지속되며 대부분은 자연 치유된다.
 - 102도 이상의 고열이 나타나 혈변, 설사 잦은 구토 등의 증상이 심한 경우 1차 진료를 찾아야 한다.

hsb@bostonkorea.com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미셸 우 시의원 맹활약, 2년후 보스톤 시장 도전하나

▶▶ 1면에 이어서

심을 꼬집는 오피니언 기고로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 끌며 사고의 전환을 시도한다.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을 제시하는 정치인으로서 미셸 우라는 이름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톡톡히 이끌어 내고 있다.

우 시의원은 최근 보스톤 글로브 기고를 통해 MBTA 이사회에 보스톤을 비롯한 지자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우 시의원은 뉴욕 등 다른 도시의 경우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뉴욕시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며 보스톤을 비롯한 주변 지자체에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티 월시 시장은 당초 MBTA 요금 인상 반대에 나서지 않았지만 탈선사고가 일어나며 여론이 나빠지자 요금 인상 연기를 주장하고 우 시의원처럼 MBTA 이사회에 보스톤 시의 참여를 동시에 주장하기도 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의 제자로 알려진 우 의원은 기존 보스톤시 정치인들이 건드리기 꺼려하는 이슈들에 대해 과감하게 정책을 수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셸 우는 1개월전 보스톤 시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주민주차허가 요금을 두배로 올리자고 주장해 호응을 받았다. 마티 월시 시장과 그의 동료 시의원 마이클 플레허티도 반대의견을 표했지만 개의치 않고 이를 주장한 것이다. 보스톤의 터줏대감들 그리고 기성 정치인과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처럼 우 시의원의 대중교통, 환경에 대한 문제에서 진보적인 주장을 서슴지 않으므로 인해 보스톤 시 새로운 진보물결의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스톤 글로브는 2년 후 시장 선거에 출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스톤의 정치 전문가들은 올 가을 유권자들의 관심이 어떤 쪽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주

목해야 한다고 밝힌다. 우 시의원의 활동이 헤드라인을 점거하지만 유권자들이 얼마나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 주는가에 따라 2년 후 가능성이 점쳐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보스톤 광역구 시의원 4선에 도전하는 우 시의원은 당연히 멀리 있는 시장 선거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당장 올해 가을에 닥친 시의원 선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 시의원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보스톤시는 다른 경향을 보게 될 것이다. 시 전역의 시민들은 변화를 위한 준비가 됐으며 과감한 행동을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가을, 보스톤에서는 어야나 프레슬리 연방 하원의원(당시 시의원)이 당시 현역이었던 마이클 카푸아노 전 의원을 제치고 하원의원을 차지했다. 레이첼 톨린스 서퍽시검감장도 당시 덴 콘리 검감장의 부 검감장이었던 상대를 꺾고 검감장에 당선됐다. 이 같은 바람이 올해 더욱 거세진다면 2년 후 보스톤 시장 선거의 향배는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보스톤글로브와 인터뷰한 프로그레시브 매사추세츠 로슬린데일 및 웨스트락스베리 지부의 레이철 폴러너 씨는 “보스톤시 전통적인 정치계는 인구 구성상 그리고 이념적인 변화를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한다. 프로그레시브 매사추세츠는 현역 정치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 시의원만을 지지한다. 폴러너 씨는 유권자들인 자신 지역 문제 보다는 이제 “주택, 교통, 그리고 환경 문제 즉 커다란 이슈들에 더 관심을 갖는다” 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보스톤 시의원 선거에서 미셸 우 시의원은 4석의 광역구 시의원 중에서 24%를 득표해 1위로 당선됐다. 현재 주 하원의원이 된 프레슬리 의원은 흑인밀집 지역인



미셸 우 보스톤 시의원이 자신이 거주하는 로슬린데일에서 선거 유세를 벌이고 있다

락스베리에서는 훨씬 강세를 보였다. 우 의원은 올해 선거 캠프를 락스베리 지역 다른 2명의 여성 시의원들과 공동 선거본부부를 차리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 보스톤 시장 선거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표심이야말로 당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다.

대만 출신인 우 시의원은 시카고에서 하버드대학 경제학과 진학을 위해 보스톤으로 왔으며 추후 하버드 법대에 진학해 엘리자베스 워렌 당시 법대 교수의 제자가 되었다. 2013년 최초 아시아 여성 보스톤 시의원이 됐고 또한 최초 아시아 여성 시의장이 되기도 했다.

그동안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했으며 BYOB(Bring Your Own Bottle) 조례 제정, 에어비앤비 세금 부과 조례 제정 등을 이끌었다. 미셸 우는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진보 후보이지만 때로는 보수와 협치에도 망설이지 않는다. 우 시의원은 보수적인 라인인 시의원의 시의원 선거에서 지지를 표명해 당선시키며 많은 진보 지지층의 원성도 샀지만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자신의 진보적 색채를 강화하는 정책들로 진보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editor@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정리가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휴가 때면 만나는 호텔 '리조트피' 어떻게 피할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휴가지 호텔을 검색하다 보면 마지막에 따라 붙는 추가요금이 있다. '리조트피', '퍼실리티 유즈피', '데스티네이션 피' 등이 그것이다. 여름 휴가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호텔들이 부과하는 '리조트피'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리조트 피'는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탓에 예약시 숙박료만 생각했다 낭패를 보는 고객들도 많다.

'리조트 피' 등 각종 수수료는 호텔이 숙박료 외에 부과하는 일종의 이용료다. 의무적인 리조트 피는 1990년 후반 또는 2000년 초반부터 라스베이거스, 캐리비안, 하와이, 올랜드 등 유명 여행지 호텔에 점차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리조트 피는 리조트가 아닌

목적지의 호텔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새로운 이름을 달기 시작했다. 데스티네이션 피, 퍼실리티 피, 어미니티 피 등으로 변신하면서 거의 모든 도시 호텔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포인트가이닷컴에 따르면 2016 뉴욕의 15개 호텔이 데스티네이션 피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2019년 무려 84개 호텔로 늘었다.

이처럼 '리조트 피'가 오르면서 호텔 예약 사이트들도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부킹닷컴은 앞으로 숙박료에 '리조트 피'를 포함한 금액에 대해서 커미션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호텔들이 떠나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CEO가 교체되고 현재 커미션에 대한 이야기는 유야무야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부 호텔은 객실당이 아닌 숙박객 1인당 '리조트 피'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 예약 시에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리조트피를 피하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리조트피를 찾아서 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호텔을 피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때로는 주의하면서 예약을 했어도 이를 숨겼다 나중에 부과하는 곳도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resortfeechecker.com 을 이용해야 한다.

이외에 하얏트나 힐튼 등 숙박시 포인트를 이용하는 경우 리조트피를 부과하지 않는다.

hsb@bostonkorea.com

MA주 여성 도로위 다툼 끝에 상대 운전자 살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폴리버(Fall River, MA)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브락톤(Brockton, MA)에 거주하는 한 여성과 난폭운전으로 다투다 26일 금요일 오후 3시경 상대 여성을 칼로 찔러 살해했다.

가해 운전자인 재클린 멘디스(32)는 1일 브락톤 지법에 살해 및 의도적 살인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멘디스는 무죄를 호소했으나 판사는 보석허가 없이 그를 감금시켰다.

사건은 금요일 오후 3시 45분경 브락톤에서 발생했다. 경찰이 복수의 911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했다. 함께 출동한 구급대에 따르면 41세의 브락톤 거주

제니퍼 랜드리 씨는 오른쪽 목에 치명적인 자상을 입고 피를 흘린 채 벨몬트 스트리트와 그레프톤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발견됐다.

랜드리 씨는 바로 헬기를 통해 인근 굿사마리탄병원에 후송됐고 다음 날 보스톤메디컬센터로 후송됐으나 토요일 오후 BMC에 도착했을 당시 사망했다.

멘디스는 랜드리를 칼로 찌른 후 현장을 떠난 후 약 15분 후 브락톤 경찰에 자수했다. 멘디스는 "벨몬트 스트리트 인근에서 다른 운전자와 싸움을 벌였으며 사고는 없었으나 칼로 찔렸다" 고 진술했다.

수사팀에 따르면 사고는 난폭운전



상대운전자를 금요일 오후 칼로 찔러 살해한 후 경찰에 자수한 여성. (Brockton Police Department)

으로 인해 두 운전자가 격하게 다투었으며 결국 칼로 찌르는 사고까지 발생했고 그 이후 자신의 차로 돌아와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hsb@bostonkorea.com



한여름의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아마존의 프라이데이 할인행사가 올해에는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48시간으로 늘려 진행된다

아마존 프라이데이 올해는 2일로 늘려

올해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48시간동안 진행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매출 신기록 노린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여름의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아마존의 프라이데이' 할인행사가 올해에는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48시간으로 늘려 진행된다.

아마존 프라이데이는 회원을 대상으로 특정 제품을 할인하는 행사로 매년 인기를 더 높여가고 있다.

아마존은 지난달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프라이데이는 7월 15일부터 48시간"이라고 선언했다. 지난해에는 2일간에 걸쳐 36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주문이 폭주하면서 아마존 사이트의 접속 불량 사태가 이어지기도 했다. 2015년 처음 시작된 아마존 프라이데이는 첫째 24시간 2017년 30시간, 지난해 36시간 등으로 꾸준히 행사시간이 늘었다.

비회원도 30일 무료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프라이데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MASS-Drain DRAIN & PLUMBING

막힌 곳을 **확** 뚫어드립니다

부엌, 목욕탕 리모델링 전문

WATER HEATER, BOILER HEATING, FAUCET

www.massdrain.com | massdrain@gmail.com

617.645.6146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나이키 노예제 연상 운동화 여론 못매

콜린 캐퍼닉 전 쿼터백 "노예제 연상" 지적 공화당선 "역사적 유산 부끄럽게 여긴다" 주장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글로벌 스포츠 의류 기업 나이키가 미국 독립 기념일(7월4일)에 맞춰 초창기 성조기 '벤티로스기'가 그려진 운동화를 출시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벤티로스기가 노예 제도와 백인 우월주의를 연상시킨다는 비난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APF통신 등에 따르면 나이키는 2일 성명을 통해 운동화 뒤꿈치에 '벤티로스기'가 각인된 "에어맥스원USA"의 유통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나이키는 이번 주부터 홈페이지와 소포물 등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직 미 프로풋볼(NFL) 선수 콜린 캐퍼닉이 이 운동화가 "노예제를 연상시킨다"며 항의한 데다, 트위터·페이스북 등에도 나이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출시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초기 성조기 제작자인 벤티로스기의 이름을 따 만든 벤티로스기는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난 1770년대 처음 고안됐다. 벤티로스기엔 현재의 성조기와 달리 좌측 상단에 13개 식민지를 나타내는 흰 별 13개가 그려져 있다.

2016년 NFL의 '무릎 꿇기' 시위를 주도한 캐퍼닉은 "벤티로스기 디자인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에서 노예제가 합법화됐던 시기와 연관돼 있다"며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벤티로스기는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도 사용한 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나이키는 미 전역 소매점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하고, 해당 운동화 디자인을 홈페이지에서도 삭제했다.

그러자 집권 공화당에선 정반대의 이

유로 나이키를 비난하고 있다. 나이키가 미국의 역사적 유산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것이다. 공화당 소속의 더그 듀시 애리조나주지사는 "나이키 공장에 대한 국가 지원을 철회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텍사스)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나이키 고객으로서의 시대는 끝났다. 나이키 운동화는 미국 국기에 대한 경멸을 나타낸다고 결론지었다"며 나이키 불매 운동을 주장했다.

이처럼 벤티로스기 운동화를 둘러싼 논란은 거세지만 해당 제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관련 보도가 나온 뒤 '에어맥스원USA'가격은 200달러까지 올랐다. angela0204@news1.kr



초창기 성조기 '벤티로스기' 운동화



의회 폐북 암호화폐 리브라 발행에 제동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 의회가 페이스북(이하 페북)이 추진하고 있는 암호화폐(가상화폐) '리브라' 발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 보도했다.

미국 하원 금융위 위원장인 맥신 워터스는 2일 미국의 규제당국이 페북이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금융시장 안정을 해치는 지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리브라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터스 위원장 이외에도 같은 당 소속 3명의 하원의원이 페북이 리브라 발행 계획을 일단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페북이 케임브리지 애널

리티카'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개인정보를 악용해 왔다며 페북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고 주장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 데이터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북에서 얻은 개인 정보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캠프에 제공한 사실이 지난해 드러나 페북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었다.

이들은 또 리브라가 달러의 패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금융위와 상원 은행위는 7월 중순께 공동으로 리브라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FT는 전했다.

sinopark@news1.kr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이용해보세요!

강남지인병원

GANGNAM GIE HOSPITAL

★ 미주, 캐나다 무료전화 (Call for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김수남

보스톤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49-1766

지인처럼 편하게, 지성으로 진료하는 강남지인병원

강남지인병원 건강검진센터는 대학병원, 대형건강검진센터에서 도입한 최신 혈액검사, 초음파, 128채널 CT 등 최신행 플랫폼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상 진료와 연계되는 검사장비를 투입하여 실제로 내 건강과 연관 깊은 맞춤형 검사 프로그램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강남지인병원은 편안하고 안전한 진료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전 역량을 최선으로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31(논현동) 강남지인병원 (구 다산백병원) 대표번호 02-6935-4119 www.giehospital.co.kr

종합검진 기본항목

검사기본진료(신체계측동), 안과(안저,안압), 폐기능, 체성분, 심전도, 흉부촬영, 중앙표지자검사, 부인과검사(자궁, 유방), 혈액종합검사(70여가지), 소변검사, 구강검사등

휴람 당일검진 프로그램 → 53만원

종합검진 기본항목+
위내시경(수면), 초음파(갑상선, 상복부, 복부대동맥, 공동맥, 전립선(남), 유방(여), 허벅지(여), 뇌혈류) + 동맥경화검사, 스트레스-지대검사, 심장초음파, 흉부CT, 심장석회화CT, 생체나미검사

휴람 숙박검진 프로그램 → 60만원

종합검진 기본항목+
위내시경(수면), 초음파(갑상선, 상복부, 복부대동맥, 공동맥, 전립선(남), 유방(여), 허벅지(여), 뇌혈류) + 동맥경화검사, 스트레스-지대검사, 심장초음파, 흉부CT, 심장석회화CT, 생체나미검사

휴람 정밀검진 프로그램 → 95만원

휴람 숙박검진 프로그램+
혈액검사 추가 + 복부CT(조영제 포함) - 관상동맥CT + 90MR, NIMRA

◆ 1박2일(1인실객실) / 입원료포함(제공 / 당일모주 4시 일회 - 당일 모주 12시까지)



마음대로 골라본다



\$24⁹⁹

5월 1일부터 Tbo 상품의 가격이 인상됩니다.

상품 가격이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 (무료영화는 4월 및 5월까지 무료. 6월부터 편당 1볼로 변경)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⁹⁹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YOUTUBE



\$34⁹⁹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영화/성인, YOUTUBE



\$39⁹⁹

티보 대리점 모집

각 달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걱정만 준비하는 성인
주택용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동상대출
캐쉬아웃 리파이낸스 나의노후?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의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mlee@mbamortgageco.com

978.314.8818

2 Adams Place, Suite 410 | Quincy, MA 02169

민주당 사실상 경선 개시 TV토론 승자 워렌 · 카스트로

워렌 "가진 자만을 위한 경제는 부패한 것" 카스트로 "국경 넘는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없애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 선언한 민주당 후보 간 경선이 26일 TV 토론회를 통해 사실상 막을 올렸다. 첫날 토론부터 열띤 모습이 연출됐고 엘리자베스 워렌(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NBC방송이 주관한 이번 첫 토론회에는 20명이 참가했다. 이튿날 CNN이 주관하는 토론회에는 여론조사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력 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이 나올 예정이라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는 건강보험과 경제적 불평등, 기후변화, 총기 범죄, 이민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벌어졌다. 워렌 상원의원과 베토 오로크 전 텍사스주 하원의원과 코리 부커(뉴저지) 상원의원, 홀리안 카스트로 전 주택도시개발 부장관,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 등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눴다.

CNN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그중에서도 토론 초반 가장 주목을 받은 후보는 워렌 의원이었다. 특히 그는 자신이 가장 전면으로 내세우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나라의 경제는 누구를 위해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부가 가진 자만을 위하고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좋지 않은 쪽으로 경제를 운영한



엘리자베스 워렌(매사추세츠) 상원의원(왼쪽)과 홀리안 카스트로 전 주택도시개발 장관

다면 이는 다름 아닌 부패"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워렌 의원은 부유세와 거대 IT 업체, 선거 제도 등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마지막 발언에서 "나는 우리가 정부를 구성해 경제를 운영할 수 있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닌 모든 이들을 위해 일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것만은 약속하겠다. 내 가족을 위한 만큼 여러분을 위해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마 선언 후 유권자들의 관심 밖에 있던 카스트로 전 장관도 이날 만큼은 토론회의 주인공이었다. 그는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0~1%의 지지율에 머물렀으나 이날 이후로 지지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CNN은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그는 워렌 의원만큼

이나 많은 발언을 했는데 특히 이민과 관련해서는 다른 의원들과 열띤 토론을 펼쳤다. 그는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민사가 아닌 형사 처벌하는 이민법 내 조항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오로크 전 텍사스주 하원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자신의 단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깊이가 부족했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연습한 티가 너무 났다고 CNN은 평가했다. 그 예로 스페인어로 말할 그의 첫 답변에 대해 준비 과정에서 좋은 생각이라 여겼지만 지나치게 '계획했다'는 인상을 줬다고 진단했다.

또 CNN은 이날 토론회에 10명의 후보가 무대에 오른 점도 과했다고 지적했다. 후보자들이 누구이며 그들의 생각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yellowpollo@news1.kr



미국 민주당 내 대선 후보자들 2차 TV 토론회

민주 대선 TV토론 최고기록 1810만명 봤다

900만명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시청

(서울=뉴스1) 김정환 기자 = 2020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내 대선 후보자들 간의 TV 토론회가 이틀째 되는 날 1810만명의 시청자를 끌어 모았다고 NBC 뉴스가 28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선두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이 출연한 이날 행사는 NBC, 케이블 채널 MSNBC, 스페인어 방송사 텔레문도 등을 통해 방영됐다.

이전에 민주당의 TV 토론회의 최고 시청자 수 기록은 2015년 10월에 세워진 1580만명이었다.

공화당 후보들의 토론의 경우 지난 2015년 8월 폭스뉴스 채널 토론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출연

했을 때 2400만명이 시청했다.

이날 TV 토론에서는 카말라 해리스(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 다른 경쟁자들을 압도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인종차별주의자에 대한 발언, 고령에 대한 다른 후보의 공격에 가로막혀 해명하기에 급급했고, 샌더스 상원의원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

NBC방송은 TV 시청 외에도 약 900만명이 추가로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이번 대선 토론회를 시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후보들이 트럼프에 도전하려는 가운데 두 번째였다. NBC 방송은 전날 TV토론회에는 약 1530만명이 시청했다고 전했다.

acenes@news1.kr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

Century 21

바이든 대세론 흔들? 해리스, 민주 지지율 2위 부상

CNN 조사 "TV토론 효과 반영...격차 좁혀져"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흑인 여성검사 출신의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지지율 1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CNN 방송이 지난달 28~3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22%의 지지율로 민주당 대권주자들 가운데 1위를 달리는 가운데 해리스 의원이 17%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엘리자베스 워렌(15%)·버니 샌더스(14%) 상원의원 등의 순이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5월 말 실시된 CNN 조사에선 32%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한 달 새 급격히 하락했다.

CNN은 지난달 27일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들 간의 첫 번째 TV토론에서 해리스 의원이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인종

차별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한 사실'이 이번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토론 당시 해리스는 바이든이 1970년대 미 교육부가 흑백 인종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스쿨버스 통학을 반대했다고 폭로했다.

샌더스 의원은 TV토론 전 18%였던 지지율이 토론 뒤엔 14%로 떨어졌다. 2016년 대선 당시 샌더스 열풍에 비해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이다.

CNN은 "첫 토론회로 바이든이 미끄러진 사이 해리스와 워렌이 뜨고 있다"며 "특히 해리스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와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전체 유권자들은 여전히 바이든을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43%가 바이든을 내년 대통령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고 답했고, 샌더스와 해리스는 각각 13%와 12%에 그쳤다.

이번 CNN 조사에서 바이든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은 흑인(바이든 36%, 해리스 24%, 워렌 12%, 샌더스 9%)과 노년층(바이든 34%, 해리스 14%, 워렌 12%, 샌더스 7%)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내년 2월 3일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6월 초까지 미 전역을 돌며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을 진행한 뒤 이어 7월 13~16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를 통해 대선후보를 공식 지명할 예정이다.

angela0204@news1.kr

민주당 두 번째 토론 결과는? 주인공은 '카말라 해리스'

바이든, 공격해명에 급급...샌더스 존재감 작아 트럼프 이민정책·소득 불평등 맹비난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민주당 대선 출마 후보들 간 두 번째 TV토론회가 27일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 4명이 참가할 예정이었기에 전날보다 많은 관심이 쏠렸다.

특히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 등이 주목받았지만,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인종차별 주의자에 대한 발언, 고령에 대한 다른 후보의 공격에 가로막혀 해명하기에 급급했고, 샌더스 상원의원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

전날 토론회 주인공이 엘리자베스 워렌(매사추세츠)이었다면 이날 토론회는 카말라 해리스(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었다.

발언 시간으로만 보더라도 해리스 의원은 12분 16초로 바이든 전 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길었다. 또한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인터넷에 가장 많이 검색된 후보 이름 순위에서도 해리스 의원은 2위를 차지했다.

해리스 상원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고(故) 제임스 이스트랜드 상원의원과 고 허만 탈매지 상원의원에 대한 바이든 전 부통령의 발언을 공격했다. 두 상원의원은 과거 인종차별 주의자로 알려진 인물들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과거 뉴욕의 한 모금행사에서 이들과 함께 일한 경험을 떠올리며 "최소한의 예의는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해리스 의원은 자신이 자라면서 겪었던 차별을 설명하면서 "당신이 인종차별주의자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두 상원의원(이스트랜드와 탈매지)에 대한 당신의 평가를 듣는 순간 상처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과거 흑백 인종 통합 교육과 이를 위한 스쿨버스 운행에 반대했던 사실을 거론, "당시 매일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던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바로 나였다"며 그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꼬집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76세라는 고령도 이날 토론회에서 공격 대상이었다.

민주당 후보들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과 소득 불평등 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맹비난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끔찍한 정책을 펼쳤다고 비난했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병적인 거짓말쟁이자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일갈했다.

pasta@news.kr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왼쪽)과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

FOR SALE

**FULL-PLANT
DRY CLEANING STORE**
(NO WHOLESALE / DROP-OFF)

YEARLY INCOME : \$500,000+

CALL: _____

WORK: 781.233.0522

CELL: 781.558.6457



티보플레이 1+1 호도이벤트

우리집에 티보플레이 설치하면 무료! **티보플레이 1+1 호도이벤트**

다각이리-광역대인 **NW 티보플레이**

617-949-1766

형제 떡집



GRAND OPEN

축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전쟁광 볼턴, 이제 트럼프로부터 모욕받을 차례 됐다

미셸 골드버그, NYT 칼럼서 주장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뉴욕타임스(NYT)가 북미 정상간의 '깜짝 만남'에서 배제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NSC) 보좌관에 대해 그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굴욕을 받을 차례가 되었다고 보도했다.

1일 NYT의 미셸 골드버그 칼럼니스트는 '존 볼턴의 웰컴 모욕'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렉스 틸러스 전 국무장관, 마이클 코언 전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 폴 매너포트 전 선거대책본부장에 이어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굴욕을 받을 차례라고 썼다.

골드버그 칼럼니스트는 칼럼에 '전쟁광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존엄성을 빼앗긴 가장 최근의 인물'이라는 부제를 붙인 채 줄곧 볼턴 보좌관을 '전쟁광'이라고 불렀다.

칼럼은 볼턴 보좌관이 때때로 '신보수주의자'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신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의 가치 확대를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볼턴은 미국의 힘을 강요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또 "결코기에는 인권에도 관심이 없고 다자간 기구를 경멸하는 트럼프와 아주 잘 어울린다. 둘다 호전적인 민족주의자로, 기후 변화를 무시하며, 이스라엘의 권리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하며, 이슬람에 적대적이지만 사우디 아라비아에 우호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친구인 북한의 전체주의 지도자인 김정은과 약속하기 위해 북한에 발을 들여놓은 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NSC) 보좌관

난 주말 그가 느꼈던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칼럼은 썼다.

이에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달 30일 판문점의 북미 회동 수주 전부터 '미 정부 내에서 현재의 북핵 상태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암묵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돼왔다'고 보도했다.

그후 볼턴 보좌관이 발끈하면서 트위터를 통해 "NSC 소속 직원들은 물론 나도 북한의 핵동결에 대해선 논의하거나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지만 이번 칼럼은 이에 대해서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

이 김 위원장에게 아침을 하는 동안 볼턴은 몽골에 있었다"고 받아쳤다.

NYT는 이어 볼턴에 대한 대안적인 인물로 폭스뉴스에서 정치토크쇼를 진행하는 터커 칼슨을 들었다. 그는 이란과의 군사적 대결에서 벗어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해온 인물이자 이번 대통령의 DMZ 방문에서 그림자처럼 그를 밀착 수행한 이다.

지난달에 칼슨은 볼턴을 전쟁을 항상 좋은 사업거리로만 여기는 관료적 '촌충'(tapeworm·강박적인 사람을 의미)이라고 부르며 대립각을 세웠다.

ungaungae@news1.kr



크리스토퍼 월러 세인트루이스 연은 부총재(왼쪽) 주디 셸턴 EBRD 미국대표

트럼프, 새 연준 이사 후보 월러·셀턴 지명

월러, 세인트루이스 연은서 부총재·연구책임자 셀턴, 보수성향 경제학자·EBRD 이사회 미국 대표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후보로 크리스토퍼 월러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부총재와 주디 셸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회 미국대표를 지명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연준 이사 지명 계획을 발표하면서 두 후보의 이력을 소개했다.

월러 부총재는 노트르담 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할 경험이 있으며,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는 부총재 겸 연구책임자로 일했다.

셀턴 대표는 보수 성향의 경제

학자로, EBRD에서 일하기 전에는 힐튼 호텔 이사과 재향군인 지원단 체인 임파워아메리카의 이사를 지냈다. CNBC에 따르면 셸턴 대표는 지난달 인터뷰에서 "이사로 임명된다면 1~2년 안에 금리를 0%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7인 체제로 운영되는 연준 이사회는 현재 2명이 공식 상태다. 월러 부총재와 셸턴 대표가 연준 이사로 정식 임명되려면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성향 경제학자 스티븐 무어와 자신의 측근인 허먼 케인을 연준 이사 후보로 지명하려 했지만 이들 모두 자질 논란을 빚으며 자진 사퇴했다.

pasta@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Chelmsford Beauty Academy

로웰에서 5분, 로렌스에서 15분, 벌링턴에서 10분, 앤도버에서 10분 거리

- 경험있는 교사진
- 90% 주보드 시험 통과후 바로 취업
- 풀타임 및 파트타임
- 매달 속눈썹 연장, 속눈썹 리프트, 눈썹 문신 훈련 클래스



뷰티 아카데미 수업 내용 및 시간

에스테틱스: 600시간

페이셜, 왁싱, 메이크업, 속눈썹 연장 등 포함

매뉴큐어리스트 : 100시간

매니큐어, 페디큐어, 아크릴릭 젤, 디핑 파우더 등 포함



60 Chelmsford st #2, Chelmsford MA 01824
978.250.4488 978.987.3766

특스베리 소재 성업중인 네일살롱에서 네일 테크니션 구인중
주급 \$800-\$1000
978.967.6695, 978.987.3766

2개 대형 네일살롱 세일중

12개 스파 페디큐어, 10개 매니큐어 테이블

2 페이셜+ 왁싱 룸, 월마트가 있는 대형 플라자 내(가격 16만불 이상)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인력 취업비자(H-1B)
- ✓ 투자비자(E-2)
- ✓ 주재원 비자(L-2)
- ✓ 투자이민(EB-5)
- ✓ 특기자 비자(O-1, P-1)
- ✓ 가족초청이민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시민권 신청
- ✓ 취업이민
- ✓ 주방재판
- ✓ 교수/연구직 이민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 / suhlaw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일 경제보복에 한국... 맞불보단 대안 마련 우회

한일 상호 간 3위 교역국임에도 약점 파고든 교도통신 등 대한국 수출 품목 확대 검토 보도도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가 확대될 수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일본이 공세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맞불을 놓기보다는 기술 대체를 위한 투자강화로 확전 자체는 최대한 자제하는 모양새다.

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일 간 교역 규모는 851.2억달러(약 96조원)로 한국에 일본은 수출대상국 5위(305.2억달러), 수입대상은 3위(545억달러)에 각각 해당했다. 이 같은 교역 규모는 중국, 미국에 이은 3위에 해당한다.

일본에 한국은 수출대상국 3위, 수입대상국 4위로 미국, 중국에 이어 3위 교역국이다.

한일 양국의 산업계는 상호 간 교역을 통해 밀접하게 의존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 이는 양국 간 수출입 상위 품목이 반도체, 화학 등으로 유사한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5월 대일본 수출 상위 품목은 △석유제품(18억2600만 달러) △철강관(951억 달러) △정밀화학원료(4억8500만 달러) △반도체(4억1000만 달러) △자동차부품(3억5600만 달러) 등의 순이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입 품목은 △반도체(18억2300만 달러) △반도체제조장비(15억1300만 달러) △철강관(10억600만 달러) △플라스틱제품(8억9000만 달러) △기초유분(7억700만 달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관련 품목이 한일 모두 상위권으로 양국 전자산업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 예를 들어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장비나 소재를 수입해 완성된 반도체를 내놓으면 일본의 파나소닉, 샤프 등의 전자업체가 이를 사용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생산하는 구조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보도가 나온 이후 일본 거래선에 인력을 급파해 수출입선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제재가 있는 건 아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4일부터 반도체 공정에서 빛을 인식하는 감광재인 '리지스트', 반도체 회로를 식각할 때 사용하는 '에칭 가스', 불소 처리를 통해 열 안정성을 강화한 필름으로 OLED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총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절차 간소화 등 우대조치를 폐지한다. 이렇게 되면 수출 계약마다 매번 심사를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수개월까지 심사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이들 3개 소재의 제품 수출뿐만 아니라 제조기술 이전까지 이번 규제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NH투자증권은 "제조기술 이전은 이와 관련한 제조설비의 수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며 "일본 기업과의 제휴형태로 국내에서 영업 중인 기업들의 영업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간 일본 정부는 미국, 독일, 영국 26개 국과 함께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로 지정해 첨단재료 수출시 허가 심사를 면제했지만, 여기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의견 모집 절차를 24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일본 정부의 규제가 한국 대법원이 작년 하반기부터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보복' 차원으로 해석되지만, 양국 간 외교적 해결 노력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WTO에 제소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일본을 대체할 방안을 찾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기간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 수입 다변화, 국내생산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매년 1조원을 집중투자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주요 품목인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장비 개발에 2020년부터 10년간 1조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추가로 일 반소재와 부품·장비 개발에는 2021년부터 6년간 5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반도체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10년간 총 6조원이 투자되는 셈이

다. 일본에서는 향후 대한국 수출 규제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다른 제품으로 수출규제를 확대하면서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해 첨단 기술의 수출 절차를 엄격하게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엄지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은 "양국 간 수출규제는 양쪽 산업계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외교적인 타협점을 속히 찾는 한편 기업들 간이라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yup01@news1.kr

한·일 무역전쟁에 불매운동 번질라...떨고있는 유니클로·데상트·아사히

"영향 제한적" 기대하면서도...과거와 다른 분위기에 '우려' ↑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국내에서는 반일감정이 커지면서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일 관계가 이란 시일 내 회복하면 다행이지만, 더 악화한다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강제징용자들의 배상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기업들은 당혹스러운 눈치다. 한국 기업들은 주요 품목 수급 문제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일본 기업들도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다.

이미 일본 자동차 불매운동과 일본 관광 보이콧 등 '맞불 작전'에 대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전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일본 경제 제재에 대한 정부의 보복 조치를 요청합니다' 글에는 이날 오후 16시까지 1391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및 일본관광 불매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톡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일본 기업 불매운동 리스트도 올라왔다. 유니클로를 비롯해 데상트·소니·도요타·혼다 등의 기업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불매 운동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들 제품 국적 보다는 '가성비'나 '품질' 등을 더 우선시하고 있어서다. 현재 국내에서 잘 팔리는 일본 제품은 전세계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도 한일 관계가 나빠졌을 때 불매운동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



니었다. 한 일본 기업 관계자는 "아직 불매운동에 대해 체감되진 않는다"며 "딱히 확인해 주거나, 알려드릴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거 불매운동과는 다소 다르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과거에는 정치적인 문제에 국한됐지만 이번에는 일본이 먼저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한 만큼 경제적 수단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어서다.

특히 전범기업으로 낙인찍히면 한국 내 이미지가 악화되는 불가피하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국산화 바람이 불면서 이른바 '탈일본'하게 되는 것도 일본 기업들이 우려하는 항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있었던 불매운동과 분위기가 다르다"며 "일본에서 경제보복을 먼저 했고, 쌓인 감정이 폭발하면서 타격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keon@news1.kr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JULY 5th - JULY 11th, 2019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COCONUT STRAWBERRY LAYERED BUBBLE TEA (4TH OF JULY) CELEBRATE YOUR INDEPENDENCE DAY WITH SWEET & TANGY BUBBLES!

H마트에서 공개하는 달콤한 딸기 코코넛 버블티! 독립기념일 바베큐 파티 후에 입안을 상큼하고 달콤하게 채워줄 버블티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보세요! [f](#) [p](#) [i](#) Follow us @hmartofficial

NEW RESTAURANT PARTNERS WANTED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CONTACT me@hmart.com](mailto:me@hmart.com)



<p>Seedless Watermelon 씨없는 수박 38% \$4.99</p>	<p>Korean Melon 참외 \$16.99</p>	<p>Ataulfo Mango 아물포 망고 \$10.99</p>	<p>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22.99</p>	<p>Dragon Fruit Red Flesh 드래곤 프룻 \$4.99</p>
<p>Purple Sweet Potato 보라색 고구마 \$1.99</p>	<p>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왕실은 추지사과 프리미엄 \$1.49</p>	<p>Washington Red Cherry 워싱턴 레드 체리 \$3.99</p>	<p>ZESPRI SunGold Kiwi 제스프리 골드키위 \$20.99</p>	<p>KTOWN Tofu 케이타운 두부 Soft/Silken/Firm 14-16oz./pkg. \$0.99</p>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Beef Eye Round Chunk 장조림용 흉두께 \$6.99</p>	<p>Beef Top Blade Steak 부채살 스테이크 \$6.99</p>	<p>Head-on Shrimp 머리새우 30-40's \$5.99</p>	<p>Jeju Hairtail Fish 제주 은갈치 \$5.99</p>
<p>Boneless Pork Loin 돈가스용 돼지고기 \$4.99</p>	<p>Boneless Pork Picnic Roast 돼지 앞다리 로스트 \$1.99</p>	<p>TONGTONGBAY Pollock Fillet 2. lbs./pkg. 통통배 동태전갈 \$4.99</p>	<p>Mussels in the Half Shell 반칸 홍합 \$10.99</p>
<p>Whole Chicken 통닭 \$1.79</p>	<p>Marinated Sliced Beef Bulgogi 양념 소불고기 \$6.99</p>	<p>TONGTONGBAY Bok Kum Anchovy 5oz./pkg. 통통배 가락용 쥐음 멸치 \$5.99</p>	<p>GalFish 메기 \$1.99</p>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p>KAGAWAKI California Premium Short Grain Rice 기가이역 쌀 15 lbs. \$21.99</p>	<p>KWANGCHUN MONGHYUP Green Tea Seasoned Layer 광천 농협 녹차칩 0.71oz. x 100/pkg. \$9.99</p>	<p>DOMSUN Maxm Coffee Mix 동서 로스팅 커피 믹스 0.52oz. x 100/pkg. \$9.99</p>	<p>CHUNGJUNGNE Gochujang Brown Rice Red Pepper Paste 청정원 순창 원제 태양초 갈고추장 3.4 lbs. \$12.99</p>	
<p>HARU HARU Medium Grain Mil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s. \$9.99</p>	<p>CHUNGJUNGNE Sanul Udon 청정원 산누끼 우동면 2.33 lbs. \$2.99</p>	<p>CHUNG SOO Mul Naengmyeon Oriental Style Noodle 청수식품 청수 냉면면 25.4oz. \$3.99</p>	<p>HAJO REUM Buckwheat Noodles Zaru soba 해오름 메밀 국수 3 lbs. \$3.99</p>	<p>SUNGEYUNG FOOD Pepper Chip 선명식품 칠초후박각 2.12oz. 2\$5</p>
<p>DANYA Soba Tsuyu Sauce 다야 네일국수 소스 16.71 oz. \$3.99</p>	<p>SHIRAKIKU 100% Pure Sesame Oil 시라키쿠 참기름 50fl. oz. \$9.99</p>	<p>BOHAE Maewon Prime Plum Extract Concentrate 보혜 매실 액스 16.9oz. x 2/6.7oz./pkg. \$14.99</p>	<p>HANDREUM Dumplings 해오름 만두 All Varieties 2.65 lbs. \$4.99</p>	<p>NISSUI Fish Sausage 니시 소세지 10.55oz. 2\$7</p>
<p>CALBEE Fruita Fruit & Granola 캘비 프루그라 17oz. \$6.99</p>	<p>NESTLE Kit Kat Matcha Chocolate 네슬레 킷캣 초콜릿 4.7oz. \$2.99</p>	<p>ARNALDE BASSINI Men's Underwear 아날도 베시니 남성 언더웨어 95/105/105 size 300/140g \$12.99</p>	<p>MOKOMOKO Body Towel 모코모코 바디 타월 \$1.99</p>	<p>KIDHAUS Electric Foot Massager 힐스케어 발마사지 기계 \$69.99</p>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mistakes/mis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www.hmart.com

미중 전철 밟을수도...일재계 · 전문가, 한수출규제에 우려

일본 경제에 악영향될 것...보복 당할 수도

(서울=뉴스1)이원준 기자 = 한국을 겨냥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일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양국이 미중 무역분쟁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일본 재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3일 지지통신은 "주요 경제체는 외교 마찰을 무역 손익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미국과 중국이 입증했다는 반응을 내놨다"면서 "기대와는 달리 보복전으로 확산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미중 무역분쟁 사례처럼 향후 한일 양국이 서로를 향해 보복 조치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경제동우회는 전날(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돼

야한다고 밝혔다. 쿠라다 신고 경제동우회 대표 간사는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신뢰가 흔들렸다는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의 핵심소재를 대상으로 한 수출규제가 일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실제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다시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부 전문가는 이번 수출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경제법 전문가인 후쿠나 유카



와세다대 교수는 일본 정부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관세 부과 조치로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주임연구원은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중국·홍콩이 80%를 차지하고 일본은 10%에도 못 미친다"면서 "이번 수출규제 강화로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한국 기업의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주면 재료를 공급하는 일본

기업은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만일 (한국 정부가) 보복 조치로 응수하면 일본도 상당한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도 전했다. wonjun44@news1.kr

가산점이 판 흔들까?...민주당 공천전쟁 본격화

경선 권리당원 50%로 변경, 지역구서 권리당원 확보전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천률을 확정하면서 내년 총선을 향한 공천전쟁이 본격화됐다. 일찌감치 공천률이 확정되면서 출마예정자들의 기싸움이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다. 2022년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내건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통한 압도적 총선 승리를 공언하고 나섰다.

4·15총선 공천률 중 특히, 정치신인에게 최고 20%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청와대 출신이나 친문(親文) 정치 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관측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정치신인'의 조건은 '당적을 불문하고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출마한 적이 없는 인물'로 정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를 나와 총선을 준비 중인 운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비서관,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이 대표적이다.

법무부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정치신인 20% 가산점'이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 전망이 다수다. 기존의 정치신인 가산점(10%)을 두 배로 높인 데다,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은 최고 25%의 감점을 적용하게 하는 등 기존 룰보다 '정치신인'을 우대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중전 현역 지자체장의 임기 도중 사퇴 후 총선 출마 시 감점은 10%였다.

특히 어디까지 '정치신인'으로 볼 것이냐는 논란은 이번 총선에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국 수석과 같이 출마 경험은 없지만 전국구 인지도가 높은 정치신인은 전·현직 의원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규정한 '정치신인'에는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했거나, 당내 경선에 출마한 사람, 현직 지역위원장은 제외된다.

내년 총선 출마를 타진 중인 청와대 출신 인사가 40여명에 달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공천률

경선방법
국민참여방식, 권리당원 50% + 국민안심번호선거인단 50%로 선거인단 구성

경선 가산(+)-감산(-) 기준

- 연역의원 평가 하위 20% = -20%
- 정치신인 = +최대 20%
-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 = -20%
- 여성 청년 장애인 당 특별공로자 +최대 25%
- 중도 사퇴 기초단체장 = -25%
- 경선 불복, 탈당 및 제명 등 징계경력자 = -25%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김영배 민정비서관,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등도 출마 예정자로 꼽힌다. 이처럼 친문 인사들의 대거 총선 투입은 당내 비주류 인사들의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가산점은 공천의 향배를 가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16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예상 밖의 패배다. 당시 서울 은평구에서는 '신인 10% 가산점'을 받은 강병원 전 노무현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측근인 재선 경력의 임종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꺾는 이변을 낳았다.

여성·청년·장애인에게는 최대 25%까지 가산점을 준다. 내년 총선에서 여성과 청년 등 '뉴페이스'들의 약진도 관전포인트가 될 수 있다. 다양한 인재들에 기회의 문을 넓혀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겠다는 당 지도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민주당은 전략공천도 최소화한다.

한편 내년 공천을 위한 경선이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50%를 선거인단으로 하는 국민참여 방

식으로 치러지면서 권리당원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올해 8월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올해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1년간 당비를 6차례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별써부터 지역에선 내년 2월 말·3월 초로 예상되는 경선 준비를 위해 지역구 내 인적네트워크를 총동원한 권리당원 확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전해졌다.

지역위원회와 수년간 끈끈한 관계를 맺어온 현역 의원들이 유리할 수 있다. 지역 관리를 충실하게 해온 현역의원이라면 권리당원 확보와 평소 스킨십 측면에서 정치신인보다 수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내 기존 권리당원들의 평가나 관계가 좋지 못하면 현역의원이 물갈이될 가능성이 높아 '권리당원 50%' 방식이 현역과 신인 중 누구에게 유리할지 속단하긴 어렵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권리당원은 배제하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100%로 당 후보를 뽑았다. seeit@news1.kr

트럼프, 김정은과의 만남 좋았다... 곧 다시 보길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곧 다시 보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번 주말 김 위원장과 함께한 건 정말 좋았다. 우리 만남은 정말 좋았고, 그도 매우 건강해 보였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팀은 아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문제들을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만날 것"이라며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해결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 방문 당시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회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글은 앞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약의 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수행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앞서 귀국길에 "(비핵화 실무협상) 앞으로 2~3주 지나 7월 중순쯤에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sy@news1.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 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OUR AGENTS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전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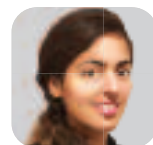
미니 유
617.803.1266
miniee@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최은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OUR LISTINGS



● 세탁소 매매

보스톤남쪽, 타운센터에 위치한 Full Plant. 안정된 고객과 매상. 소유주 은퇴. 하이드로카본.

Asking \$300,000



● Fish마켓 매매

성공한 한인들의 발판이 되었던 비즈니스 보스톤 남쪽 변화한 몰에 위치. 연매상 450K 이상. 넓은 주차장. To-go 메뉴로 Extra 수입.

Asking \$100,000



●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 시티에 위치 메인 스트리트 선상, 주요 체인점들 주변 "매상높은" 세탁소 비즈니스 포함

Asking \$990,000



● 커피샵 매매

보스톤 북쪽 타운, 연매상 20만불 이상 확보된 단골 고객, 부담없는 렌트비 1200 sq.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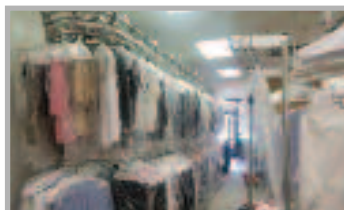
Asking \$140,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교통량 많은 메인 스트리트에 위치 안정된 고객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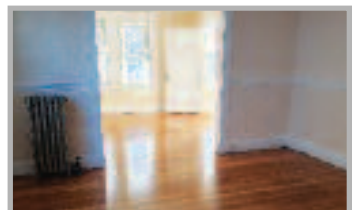
Asking \$40,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남쪽, 좋은 위치, Tailoring 수요 높음 대형 미국 체인점 주변 안정된 인근 여러 타운의 고객 확보

Asking \$50,000



● 주거렌트

에버렛에 위치, 3 Beds & 1 Bath, 새로 레노베이션된 아파트, 주차가능, 보스톤에 인접, 8월15일부터 입주 가능

Asking \$2400/월



● 리테일 가게 매매

대형 아시안 슈퍼마켓내에 입점 연중무휴로 바쁜 가게, 안정된 고정 매출 업종 변경 가능

Asking 가격 문의 바람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좋은 위치와 저렴한 렌트비 안정된 고객과 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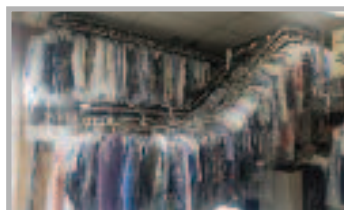
Asking \$50,000



● Take Out Seafood 튀김 가게

보스톤 환승 스테이션 위치, 특점 상권 종일 바쁜 가게, 매상 50% 순수익, 연매상 \$300,000이상

Asking \$150,000



● 세탁소매매

보스톤북쪽에 위치, Full plant 세탁소 안정된고객과매상

Asking \$165,000



● 세탁소 단독건물 매매

보스톤 인근에 위치, 안정된 매상, 좋은 위치 및 개발중인 Complex 인근에 위치

Asking \$1,095,000

나홀로 사는 여 1인가구 300만 육박...결혼 NO, 이혼 YES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만혼 · 황혼 이혼 늘면서 홀로 사는 여성 꾸준히 증가세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올해 나홀로 사는 여성 1인 가구가 300만 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황혼 이혼이 늘면서 최근 10년새 여성 1인 가구는 30% 이상 증가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올해 여성 1인 가구는 291만4000명으로 지난해 284만3000명보다 7만1000명(2.5%) 늘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1인 가구 590만 7000가구 중 49.3%에 해당하는 규모로, 여성 1인 가구가 남성 1인 가구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1인 가구는 2000년 130만4000가구에 불과했으나 2010년 221만8000가구로 크게 늘어난 데 이어 올해 300만 가구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10년새 여성 1인 가구는 69만 6000가구(3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황혼 이혼이 늘면서 나홀로 사는 노인 여성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1인 가구의 연령별 비중을 보더라도 절반에 가까운 46.1%는 60세 이상이었으며, 전체 여성 1인 가구 중 29.9%는 70세 이상 독거 노인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어 20~29세가 16.1%를 차지했으며, 50~59세 14.4%, 30~39세 11.8% 비중을 나타냈다.

여성 1인 가구 증가는 여성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 따른 미혼 여성 가구의 증가에서도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여성 비중은 43.5%에 불과한 반면,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비중은 50.8%를 기록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면서 혼자 사는 미혼 여성 가구수도 올해 148만 7000가구로 전년 대비 5만가구 증가했



다. 전체 여성 가구주 중 23.9%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 전체 여성 인구는 2579만6000명으로 총 인구의 49.9%를 차지했다. 여성 100명당 남성 수를 나타내는 성비는

100.5명을 기록했다. 남녀 성비는 2054년 97.9명까지 떨어져 35년 뒤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사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oazhoon@news1.kr

정부 경제정책서 소주성 빠졌다... 사람중심→기업친화 이동

전문가 "단순 과거 회귀는 정책퇴행...경쟁력회복 등 근본대책 필요"

(세종=뉴스1) 이훈철, 서영빈 기자 = 정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뚜렷한 변화가 감지됐다. 새 정부 출범 당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유경제를 중심으로 한 사람중심 경제를 전면에 내세웠다면 최근에는 투자지원 등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중심으로 경제정책의 포커스가 맞춰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소득주도성장론이 백기를 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재정정책의 한계를 느낀 정부가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기업부담이 큰 소득주도성장을 버렸다는 진단이다.

3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기본틀로 △경제활력 △체질개선 △포용성 강화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과거와 비교하면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사람중심 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은 자취를 감췄다. 앞서 3번의 경제정책을 발표할 때와 비교하면 사뭇 다른 기조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첫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사람 중심 경제를 목표로 수요측면에서 일자리중심·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해 12월에 발표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사람중심 경제 본격 구현을 위해 국민 삶의 가치적 변화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때 발표된 3대 전략 △일자리·소득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발표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부터 변화가 생겼다. 소득주도



성장, 사람중심 경제를 비전으로 한 기본 정책 스탠스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일자리나 소득지원이 메인인 경제 활력 제고가 맨 앞에 섰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최악의 고용쇼크와 함께 투자부진이 계속되면서 3%대였던 경제성장률이 2%대 떨어지는 등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좋지 않자 경제활력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박상인 시장과정부연구원 소장은 "정책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게 사실은 지난해 경제부총리가 바뀌고 올 초 경제활력제고를 들고 나오면서라고 봐야 한다"며 "경제가 올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안 좋아지자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 화두였던 최저임금은 확실한 변화지점이다. '만원 공약'이 달성되지 않았는데도 보폭 조절에 나섰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

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합리적 수준'이란 절제된 표현이 사용됐지만 사실상 지난 2년과 같은 급격한 인상은 '불합리'했다는 메시지를 정부가 밝힌 셈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 가계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의 근간이 되는 대표 공약이다. 이를 보완과제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정부정책의 수정을 읽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주52시간제와 탄력근로제 등 노동친화적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같은 노동정책이 경영계 부담을 키워왔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보완과제로 분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부정책기조 변화가 아닌 노동개혁이나 산업경쟁력 회복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oazhoon@news1.kr

돈버는 카카오톡 올해 영업이익 2배 꺾충

(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 = 카카오가 도입한 대화목록창 광고 '카카오톡 비즈보드'(이하 톡보드)가 수익성 회복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카카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572억원 수준이다. 지난 2018년 영업이익 729억원의 2배 이상 수익을 올릴 것이라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카카오의 영업이익률은 3%에 불과해 네이버의 16.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카카오톡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익창출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대화목록창에 광고를 띄우는 '톡보드'를 통해 본격적인 수익창출에 나설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최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정성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실적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앞서 카카오는 올해 전년 대비 '톡비즈' 부문 매출액 50% 이상 성장과 광고부문 매출액 20% 성장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톡비즈는 카카오 플러스친구,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모티콘 등 카카오톡을 활용한 사업들을 말한다.

카카오는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톡보드 베타테스트 성과



카카오톡 대화목록창 광고 '비즈보드'

를 발표하며 이 같은 목표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자신했다. 이런 자신감은 테스트 기간 중 톡보드가 높은 '전환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환율은 방문자가 제품 구매나 회원가입 등 의도한 행동을 취한 비율을 말한다.

카카오에 따르면 테스트 기간 중 톡보드의 광고지출 대비 수익률(ROAS)은 평균 400%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들과 충분히 견줄만한 수준이라는 게 카카오측의 설명이다. 카카오는 올 3분기에 톡보드를 더 많은 광고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베타테스트(OBT)로 전환하고,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 향후 정식 서비스로 출시할 예정이다. 또 현재 최대 20억원에서 5억·2억원으로 정해진 보장형 광고상품 단가도 보다 세분화해 중소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힐 계획이다.

hyun@news1.kr

소자본 투자, 고소득 가능

총 투자금 \$70,000~\$150,000으로 가능합니다.

짧은 영업시간, 고소득 창출



북미 넘버 원 안마의자 공급업체가 프랜차이즈를 시작합니다.

OTA Healthmate - 가맹점
designed by **Osaki** **Titan**



Buena Park / LA store

본사
책임



배송

전 미국 7일 안



서비스

24/7



워런티

기본 3년, 5년



북미 NO.1 브랜드

OTA Healthmate

1-888-848-2630
www.otahealthmate.com
www.titanchair.com

창업 문의: David Cho
469-271-3368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강남병원'

심장이 보내는 적신호 흉통(가슴통증)

흉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 휴람에서는 휴람 의료 네트워크 강남병원의 도움을 받아 심장 질환의 적신호인 흉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소화기 질환이나 갈비뼈 연골의 염증 등과 같은 질환에서부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급성심근경색이나 폐동맥색전증 등과 같은 응급 질환까지 흉통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슴통증으로 외래를 방문하는 경우 약 10명 중 1-2명 정도에서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으로 진단되고, 약 10%에서는 정밀검사를 하여도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증상이 심하다고 판단되어 병원 응급실로 방문하는 경우는 약 50%에서 신속한 치료를 요하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단됩니다. 즉 가슴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항상 심혈관계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혈관계 질환들은 적절한 시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흉통이 있다면 심각한 질환에 의한 가슴통증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신속한 치료를 요하는 응급질환의 흉통은 어떤 것인가요?

심근경색과 같은 급성 허혈성 심질환의 경우, 대부분 30분 이상의 지속적인 가슴통증으로 경험자들은 '뿔뿔이가 짝 누르는 듯하다', 가슴이 화

하다, '뭔가가 없힌 듯하다' 고 표현합니다. 응급수술을 요하는 대동맥 박리는 등이나 가슴을 마치 칼이나 도끼와 같이 날카로운 날로 내려 찢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지속됩니다.

긴장성 기흉은 갑자기 발생하여 수시간 지속되는 통증으로 호흡에 의해 악화되고 숨찬 증상을 동반합니다.

마지막으로 폐동맥 색전증은 심근경색과 유사한 가슴통증에서부터 숨쉴 때 마다 악화되는 맞히는 듯한 가슴 측부 통증까지 다양하며 역시 통증이 갑자기 생기고 수분 또는 수시간 지속됩니다.

◎ 어떤 경우에 협심증과 같은 허혈성 심질환을 의심해야 하나요?

허혈성 심질환이란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에 협착이 오는 질환으로 안정형 협심증, 불안정형 협심증, 심근경색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혈류가 완전히 막히면 심근에 괴사가 초래되는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된다.

다음의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 1. 전형적인 협심증의 특징이 있는가? 흉통이 운동시 악화되고 휴식 시 완화되며, 증상

이 생기는 비슷한 정도의 활동을 할 때마다 반복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식사 후에도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인이 있는가?

- 1) 연령: 45세 이상 남성, 55세 이상 여성 / 2) 조기 심혈관계 질환의 가족력: 부모, 형제, 자매, 자식 정도의 가까운 가족에게서 남자가족 55세 이전, 여자가족 65세 이전에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는 것 / 3) 흡연 / 4) 심혈관계질환을 잘 일으키는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하지허혈 등

예를 들면 아파트 3층 정도 올라가면 항상 가슴 중앙 부분이 눌리는 듯한 통증이 2-3분 동안 발생하고 운동을 중단하고 쉬면 사라지는 증상이 있고 특히 고혈압이 있고 흡연을 하는 중년이상 남성이면 협심증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연

령이나 위험요인과 상관 없이 가슴통증이 한번이라도 심하게 몇 분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심하지 않고 이따금 발생하는 가슴통증이 있는데, 그때까지 한번도 심혈관계 진찰을 받지 않았던 경우라면, 한번쯤은 관련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장 질환의 적신호인 흉통"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보스톤코리아(617-949-1766)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고국 방문 의료 상담 및 예약, 의료관광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전화 617-949-1766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CRG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톤 최고 명성의 부동산 회사 Centre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는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Jay Lee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FEATURED LISTINGS (문의: 애나 정 617.780.1675)

 <p>East Cambridge New condominium에서 편리하고 멋진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p> <p>55세대 Residential 7층 건물. 2bed만 Available. 입주와 투자용으로 최고의 위치 Lechmere 0.3miles MGH 1.5 miles Harvard University 2miles</p> <p>ASKING \$899k - 1199k</p>	 <p>Woburn's Newest Luxury farmhouse Condominium (Townhouse)에서 전원생활을 즐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p> <p>총112세대, 1층 9 foot ceiling과 open concept floor plan. 2bed, 2bath이상</p> <p>ASKING \$600,000-\$800,000</p>
---	--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개발 투자상담 환영

금주의 LISTINGS

 <p>Quincy condominium. 644 Sq, 1bed, 1bath. 1985 built, condo fee \$330. 투자용으로도 좋은 위치. North Quincy "T" station, Marina bay 걸어서 다닐 수 있음. 수영장 있음</p> <p>ASKING \$279,000</p>	 <p>보스톤 북쪽 세탁소 매매 30년 이상된 대형 물안에 위치. 고정 고객과 안정된 매상. 하이드로카본. Full plant.</p> <p>ASKING \$19,9500</p>	 <p>새로이 설립되어 성업중. 무한한 가능성. 알링턴 Nail Salon & Spa</p> <p>ASKING \$375,000</p>
 <p>보스톤 남쪽 성업중인 세탁소 매매 고정손님 확보</p> <p>ASKING \$99,000</p>	 <p>Belmont 성황중인 Nail salon 주인 리타이어, 6 manicure, 6 pedicure, Cash \$90,000, owner finance \$ 30,000</p> <p>ASKING \$120,000</p>	 <p>North Andover 성업중인 풀 플랜트 세탁소</p> <p>ASKING \$130,000</p>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p>애나 정 617.780.1675</p>	 <p>오성빈 978.505.3736</p>
---	--

SOLD

1. 퀸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SOLD**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SOLD**
8. Boston Fenway Condominium, \$668,000 **SOLD**
9.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1,495,000 **SOLD**
10. Quincy Single Family House 4 Bedroom **SOLD**
11. Dedham Single Family House \$745,000 **SOLD**
12. Drop shop in Newton \$49,000 **SOLD**

LISTINGS

 <p>North Andover 성업중인 풀 플랜트 세탁소</p> <p>ASKING \$130,000</p>	 <p>보스톤 서쪽 네일샵 안정된 수입, 고정손님 확보</p> <p>ASKING \$170,000</p>	 <p>캠브리지 비어 와인 팩캐지 store</p> <p>ASKING \$200,000</p>
---	---	---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휴람 특별가 이벤트

나에게 노안이 왔다면?

박성진 원장님이 제안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 수술
이제 휴람을 통해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세요!

40대 50대도 가능한
라식/라섹!!!
지금까지 미룬 라식수술의
기회가 다시 찾아
왔습니다.



1 휴람 안 종합검진 (베이직 : 소요시간 30~40분 / 프리미엄 : 1시간 30분)

40대가 되셨나요? 눈도 풍겨릴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 1) 휴람 베이직 안검진 : **10만원** (10여 가지 검사)
 - 시력상대, 색내장, 녹내장, 망막이질어문 기본질환 유무 확인
 - 기본시력검사(안안, 안경치방, 타각력, 굴절력, 노안) + 세극등현미경, 안압, 안저촬영
- 2) 휴람 프리미엄 안검진 : **25만원** (50여 가지 검사)
 - 기타부터 시신경 병마 구제구적제자한 정밀검진, 2인1차 한민원은 필요없습니다.
 - 휴람 베이직+녹내장+색내장+안구진료증+시신경영양+기타안정밀검사 포함

2 노안 잡는 노인성 백내장 수술 (노안 + 백내장 해결)

오래 사용하신 노후된 백내장 수정체 대신 깨끗한 뉴-수정체로 바꿔 시력을 되찾으세요~
신문도 보고, 컴퓨터도 보고, 시원하게 쬐는 풍경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1) 노안교정 백내장 : **299만원** (양안)
- 2) 다초점 인공수정체 노안 백내장 : **700만원**

3 4060 노안 라식/라섹 수술 (양안)

휴아와 업무로 라식기회를 놓치셨나요?
노안이 왔다 레이저 라식/라섹수술로 동보기와 안경도 벗는 곳중엔 프르제프르(노안 해결)

150만원 (프리미엄 안검사 포함)

4 2030 라식/라섹 **130만원** (DNA(10만원 상당), 안종합검진 포함)

※ 수술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노안 라식/라섹은 당일 수술가능합니다.
※ 수술에 제한된 약값은 개인부담이며, 안종합검진 진료후 처방비가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중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이 필요한 경우?



**육아와 업무로
라식기회를
놓치셨다면...**

20~30대 여러가지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레이저를 이용
한 노안교정이 가능합니다.



**안경과 돋보기
사용이
불편한 경우**

책과 신문, 핸드폰등을
돋보기를 통해 봐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드립니다.



**친구보다
노안이 빨리
온 경우**

나도 모르게 온 눈의
노화현상을
개선해 드립니다.



**백내장과 함께
노안 교정을
원하실 경우**

노안과 백내장이 함께 온 경우
[렌즈삽입수술]을 통하여 백내장
을 치료하고 노안도 개선 할 수
있는 수술방법입니다.



허오의료사업팀장 **김수남** ★ 무료 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64-8726)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aram.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49-1766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건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건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운전면허	617-351-4500
웰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공정신고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연합기독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연합기독교연합회(나)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안전회	978-902-8305
NE교역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주세주대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턴 대한체육회	617-852-0400
보스턴산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미노인회	978-994-494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사학인협회	781-854-8880
재단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도협회	781-424-5269
대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보호(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산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대학교동창회(한미)	617-780-7205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548-9052

언론

보스턴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몰트교회	617-792-8780
그리핀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턴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몰트교회	617-792-8780
그리핀드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핀드연합감리교회	203-861-1134
그리핀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나사렛사립교회	603-888-8040
내수아한마음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어일랜드성동교회	401-353-0983
로어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할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동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턴 새로운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0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턴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턴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턴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웨슬리안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9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턴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예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턴교회	781-676-3374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978-620-3362
에이더 벨교회	617-274-235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엘리스 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터장로교회	781-354-1843
위스콘신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장로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퀸시명성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 / 모기지

인디펜던트(금융)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중수퍼이낸스	617-799-6158

냉동 / 에어컨 / 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탕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 / 잔치 / 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흥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키파티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3374
안구정통얼굴방	617-437-0378
백영주부동산	978-239-0141
손탁한	617-290-0623
송기백부동산	781-510-9924
송현미부동산	617-835-7664
순옥원부동산	508-737-8636
신현철부동산	617-947-6293
안 수진 부동산	339-224-1512
애나정 뉴스타부동산	617-780-1675
이경혜부동산	800-867-9000
이정선	781-883-5984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부동산(EXT.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제이슨전 부동산	617-642-5670
프루덴셜(이후속)부동산	203-255-2800
프루덴셜(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돌상 대어/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턴사영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 위시아노 변호사	508-494-8719
박현정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트리스타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액커먼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브드뱅크(이재원)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한성식내과	978-854-6376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스킨&바디 클리닉	
메드스파펠리니	617-2026261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89-8670 x608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 / 모기지

인디펜던트(금융)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중수퍼이낸스	617-799-6158

냉동 / 에어컨 / 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탕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 / 잔치 / 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흥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키파티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3374
안구정통얼굴방	617-437-0378
백영주부동산	978-239-0141
손탁한	617-290-0623
송기백부동산	781-510-9924
송현미부동산	617-835-7664
순옥원부동산	508-737-8636
신현철부동산	617-947-6293
안 수진 부동산	339-224-1512
애나정 뉴스타부동산	617-780-1675
이경혜부동산	800-867-9000
이정선	781-883-5984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부동산(EXT.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제이슨전 부동산	617-642-5670
프루덴셜(이후속)부동산	203-255-2800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David's Catholic Parish of Boston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45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 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성당 야드세일
 6월 1일 (토) 9시-2시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열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종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동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4989 부동산 매개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Gift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톤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617.820.4833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새로운 100년의 주인공은 국민입니다

1919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945 8·15 광복

1960 4·19 혁명

1980 5·18 민주화운동

1987 6·10 민주항쟁

1998 IMF 외환위기 극복

2016 촛불 시인 혁명

2018 남북정상회담(판문점, 평양)

2019 3·1운동 100주년

2019 4·11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유해진x류준열x조우진, '봉오동 전투'가 복기할 승리의 역사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승리의 역사가 스크린에 펼쳐진다. 유해진과 류준열, 조우진 주연의 '봉오동 전투'가 8월 여름 극장가에서 승리의 역사를 다시 불러온다.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죽음의 골짜기로 일본 정규군을 유인해 최초의 승리를 이룬 독립군의 전투를 그린 영화다. '구타유발자들' '용의자' 살인자의 기억법' 원신연 감독의 신작이다.

'봉오동 전투'는 독립군 연합군이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첫 승리를 쟁취한 '봉오동 전투'를 처음으로 영화화한 작품이기도 하다.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특종 영웅에 주목한 기존 작품들과 달리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영웅들의 사투와 승리를 복기한다.

또한 '봉오동 전투'는 피해의 역사, 지배의 역사, 굴욕의 역사에 다루는 것이 아닌 저항의 역사, 승리의 역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영화다. 원신연 감독은 모두가 힘을 합쳐 일궈낸 첫 승리로 억압과 탄압이 아닌 저항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철저한 고증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 이날 원신연 감독은 고증의 과정을 거친 노력의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독립신문이나 남겨진 자료들 이런 것들을 통해 접근했다"며 "여기에 접근하다 보니 승리를 이르게 했던 일등공신들이 일반 국민들이고 평민들이더라. 그런 분들을 녹여내서 캐릭터들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유해진 류준열 조우진 모두 믿고 보는 연기력의 배우들로, 이들의 캐스팅 비화가 공개됐다. 원신연 감독은 "역사적인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영화이다 보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진정성 있는 분들을 캐스팅하려 했다"며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늘 우리 주변에서 머물렀을 것 같은 친근함, 편안함이 있는 분들이어야 했다. 그 당시 독립군들이 일본인들을 유인하기 위해 산, 골짜기를 많이 뛰어다녔기 때문에 체력이 있는 분이 중요했다"고 전했다.

또 원신연 감독은 "극 중 황해철(유해진 분)과 이상하(류준열 분)가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는 캐릭터기 때문에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자 유해진은 "류준열과 '택시 운전사'를 같이 했을 때도 '어디서 봤다, 친척이랑 비슷하다'는 대사가 있었다"고 말해 주위를 폭소케 했다. 원 감독은 "사진 보



면 (류준열과) 똑같이 생긴 독립군이 많다"며 "류준열을 가까이서 보면 외적인 이미지보다 속 깊은 내면이 먼저 보인다. 캐릭터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칭찬했다.

유해진은 출연 이유에 대해 "기교보다 진정성이 느껴졌다. 바위 같은, 돌맹이 같은 진정성이 느껴졌다. 그러면서 통쾌함이 묻어있었다"고 털어놨다. 또 "알려진 한 영웅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름조차 없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셨던 분들에 대해 그렸다. 진정성을 갖고 접해야겠다 생각했다"고 당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했

다. 류준열은 "처음 시나리오를 보면 모두가 느끼실 수 있는 안할 이유가 없는 영화였다.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님 영화를 재미있게 봤다. 캐릭터들도 살아있는 느낌이였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캐릭터에 대해서는 "극 중 이상하는 총을 굉장히 잘 쓰는 캐릭터다. 전투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선을 뛰어넘는 인물이다. 몸바쳐서 투쟁하는 인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조우진은 "시나리오를 덮고 난 다

음에 이렇게 벅차오르는 감정이 든 적이 있었을까 싶었을 정도로 몽클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정이 계속 달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매력을 느꼈다"고 돌아섰다. 그러자 류준열도 "안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하겠다 했지만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실존인물을 캐릭터화 하면서 애기하다 보니까 많은 자료도 찾아보기도 했다"며 "해외에서 벌어진 전투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독립 위해 싸운다는 게 몽클했다"고 털어냈다.

7월 7일 - 7월 13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사려 깊은 생각으로</p> <p>● 운수: 지나친 걱정은 병을 부르게 됩니다. 넓고 큰마음으로 살아야 심신의 편안함을 얻을 것입니다. ● 금전: 큰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 애정: 편하지 않고 쉽게 권태를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상대에 대한 사려 깊은 생각으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0, 13일 길일, 8, 11일 주의.</p>	<p>소띠 기초공사를 시작해야</p> <p>● 운수: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기초공사를 시작해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해서 일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 금전: 현재의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느냐와 얼마나 버티느냐가 성공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 애정: 일부러라도 일거리를 만들어서 일에 몰두하다보면 자신을 붙잡고 있는 생각에서 빠져나오기가 쉬울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7, 10일 길일, 9, 12일 주의.</p>	<p>범띠 덕을 베풀도록</p> <p>● 운수: 먼저 덕을 베풀도록 노력하세요. 무엇보다도 주위와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금전: 현재의 여건을 감안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손해를 막고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 애정: 혼자만의 생각으로 쉽게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곤란한 문제를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8, 12일 길일, 7, 10일 주의.</p>
<p>토끼띠 구체적인 길이 보이고</p> <p>● 운수: 자신이 뜻하던 일에 구체적인 길이 보이게 됩니다. 대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원자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안정된 운세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좋은 찬스가 주어지는 행운의 시기입니다. ● 애정: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주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출가분한 마음으로 떠나보세요. 87, 75, 63, 51, 39, 27년생은 9, 13일 길일, 8, 11일 주의.</p>	<p>용띠 철저한 관리가 필요</p> <p>● 운수: 여러 면으로 생각이 많아지고 점점 의욕이 떨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약해지고 어딘가에 의존하고 싶어집니다. ● 금전: 머릿속에 금전에 대한 고민이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금전 지출할 일이 생기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애정: 좀 더 기다려야겠습니다. 마음의 변화도 심하고 상대도 확실한 입장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0, 11일 길일, 9, 12일 주의.</p>	<p>뱀띠 기회가 주어지는</p> <p>● 운수: 차츰 밝은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상 커다란 성과를 얻게 되고 새로운 계기가 주어집니다. ● 금전: 급하게 금전용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차츰 나아질 것이니 희망을 가지세요. ● 애정: 좋은 만남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중한 만남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89, 77, 65, 53, 41, 29년생은 8, 11일 길일, 10, 13일 주의.</p>
<p>말띠 사랑의 힘으로 극복해야</p> <p>● 운수: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앞날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현실에 대처해 나가야 해결책도 보이게 됩니다. ● 금전: 투자나 매매 등에 있어서 서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금전적으로도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 애정: 자녀 때문에 부부가 함께 웃을 일이 있겠습니다. 그 어떤 방해가 들어오더라도 사랑의 힘으로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9, 12일 길일, 10, 11일 주의.</p>	<p>양띠 태도를 분명히 하고</p> <p>● 운수: 심신의 안정이 안 되고 심리적으로 예민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무엇보다 안정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생각지도 않았던 지출을 하게 됩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애정: 이성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자칫하다가는 주변이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8, 13일 길일, 9, 12일 주의.</p>	<p>원숭이띠 바라던 것을 이루고</p> <p>● 운수: 현재까지의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직업이나 업종의 전환을 하거나 주거이전을 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 금전: 점점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한 발 앞선 결정이 이익과 연결되니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 애정: 순조롭게 화합이 이루어져서 자신이 바라던 것을 이루게 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0, 11일 길일, 7, 13일 주의.</p>
<p>닭띠 관계를 회복하는데</p> <p>● 운수: 새로이 직장을 구하거나 부업을 구하는 경우에는 자본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보도록 합니다. ● 금전: 부동산 매매가 되거나 금전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생길 것입니다. ● 애정: 그동안 멀어졌던 사이라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회복의 시기입니다. 잘 활용하면 좋은 방향으로 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7, 10일 길일, 8, 12일 주의.</p>	<p>개띠 비교적 안정된</p> <p>● 운수: 비교적 안정된 편입니다. 변화 속에서 자기를 발전시키려는 사람에게는 행동의 제약이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어렵겠습니다. ● 금전: 문서 이전이나 매매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손실을 막는 현명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 애정: 편안하고 안정된 시간과 사랑을 동시에 누리려면 항상 먼저 베풀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8, 10일 길일, 7, 9일 주의.</p>	<p>돼지띠 앞을 준비하는</p> <p>● 운수: 주위 사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언행이나 대인관계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 금전: 앞을 준비하는 투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를 확고히 해야 하겠습니다. ● 애정: 뜻이 맞는 이성과의 여행이 있는 시기입니다. 즐거움이 따르는 여행이 될 것이니 여행이나 나들이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9, 13일 길일, 7, 10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급구] 부산식당에서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T. 978-897-5107

뉴장수 갈비에서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Full Time 또는 Part Time 모두 가능)
T. 781-272-3787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메이над 소재 한인식당 매매합니다.
렌트비 저렴, 러커라이센스 보유.
T. 978-897-5107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헤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캠핑클럽> 핑클 '깨방정' 여행 공개...7월14일 첫방

(서울=뉴스1스타) 윤희정 기자 = JTBC 신규 예능프로그램 '캠핑클럽'이 오는 7월14일 베일을 벗는다.

24일 JTBC '캠핑클럽'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오는 7월14일 첫방송이 확정됐다고 알렸다.

티저 영상에는 힐링과 '깨방정'을 오가는 핑클의 모습이 담겼다. 이효리 옥주현 이진, 성유리는 캠핑카를 타고 그림 같은 길을 따라 드라이브를 했고, 명상, 요가, 독서, 산책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여유로움을 만끽했다. 주변의 산과 바다 등 자연 경관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이 이들이 누리는 평화로움을 배가시켰다.

이어진 영상에서는 핑클의 진짜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이진과 성유리는 밥을 먹는 이효리와 옥주현 주위를 사륜바이크를 타고 내달렸다. 흥에 겨운 멤버들은 캠핑카 안에서 현란한 춤사위를 펼치며 14년 전과 변함없는 예능감을 선보였다. 또 동심으로 돌아간 듯 물총놀

이에 열을 올렸고, 활동 당시의 안무를 맞춰보기도 했다.

한 편의 티저에서 극과 극의 분위기를 보여준 핑클의 모습은 활동 당시 예능계를 뒤흔들었던 멤버들의 찰떡 호흡을 다시금 떠오르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세월이 흐른 만큼 네 사람의 변화된 모습과 또 여전히 간직한 모습 등 다양한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캠핑클럽'은 1세대 아이돌 핑클이 출연하는 리얼리티 프로

그램으로 14년 만에 다시 모인 네 명의 멤버 이효리 옥주현 이진 성유리가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여행을 하는 모습을 담는다. 여행을 통해 떨어져 있었던 마음을 나누고, 데뷔 21주년 기념 무대에 설지 결정하게 된다. '캠핑클럽'은 '걸스피릿' '효리네 민박1,2'의 마진영PD가 정승일PD와 공동으로 연출한다. 7월 14일 오후 9시 첫방송으로, SBS '미운 우리 새끼', MBC '호구의 연애' tvN 주말드라마 등과 동시간대 경쟁을 펼친다.

유재석X조세호 '유퀴즈 온 더 블럭', 자체 최고 경신 '3.6%'

(서울=뉴스1스타) 김민지 기자 = '유퀴즈 온 더 블럭'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3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방송된 tvN '유퀴즈 온 더 블럭' 24회는 평균 2.5%, 최고 3.6%(전국 유료플랫폼 기준)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2일 방송에서는 '큰 자기' 유재석과 '아기 자기' 조세호가 경

기도 수원을 사람 여행을 떠나 '수원 화성'부터 행궁동 공방거리, 수원왕갈비집, 지동 벽화마을 등 수원 곳곳을 누비며 웃음 가득한 토크를 선보였다.

시민들의 일상에 소박한 행복을 전할 큰 자기와 아기자기의 사람여행 '유퀴즈 온 더 블럭'은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 방송된다.

breeze52@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 NCARB • CDT • LEED AP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20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your home!
Please call us for your major and mid-size renovation and new build projects.

otk212@gmail.com 617.620.8242

No handyman jobs, please.

© 2019 OTK DeCon Group

보스톤코리아

보스톤 한인업소록



구글에서 찾을 수 없는 한인업소들의 알짜 정보를 담은 한인업소록을 발간

보스톤의 모든 한인 업소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2013년 보스토니안 발행이후, 6년만에 보스톤 한인업소록을 개정해서 발간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9년 보스톤 한인업소록에는 보스톤 지역뿐만 아니라, 로드 아일랜드 및 뉴햄프셔 등 뉴잉글랜드 지역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를 망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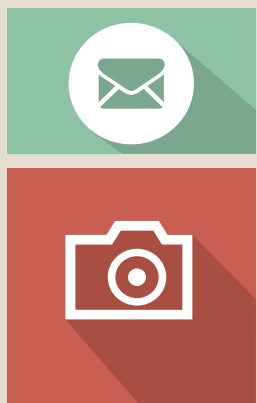
이 디지털 한인업소록은 카톡, 페이스북 등의 SNS와 이메일 등으로 고객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광고 문의 및 업소등록

광고 문의 및 업소등록을 원하시면 :
upsorok@bostonkorea.com으로
이메일하세요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 휴람은 상담-예약-검진진행-사후관리를 보호지역함으로써 도와드립니다.
** 지금 상담을 통해 고객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검진을 결정해 보세요!!



■ 휴람 건강검진 이벤트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4시간 :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검사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60만원 ~

- 당일종합검진 +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9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남] 경동맥초음파, 뇌MRI, 뇌MRA
- 숙박종합검진 + [여] 뇌MRI, 뇌MRA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22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뇌MRI, 뇌MRA, 심장 CT, 심장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 [남] 갑상선초음파 [여] 폐CT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전 ~ 명일 12시경 퇴원 : 370만원 ~

- VIP종합검진 + PET-CT, 복부조영CT, 호르몬검사, 호모시스테인(중풍, 심혈관질환 인자)

휴람건강검진 네트워크 병원

휴람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 강남지인병원(논현동 학동역)
- 강남병원(용인시 신갈동 기흥역)

* 프로그램에 따라 픽업서비스, 문품셋트, 죽등을 제공합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미국, 캐나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HURAM(1-844-364-8726)
Tel : 0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co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보스톤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49-1766

협력업체

신영의 세상 스케치

702회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시인과 촌장' 하덕규 목사의 삶과 노래

지난 6월 29일(토), 30일(일) North Andover 소재 '다문화 선교교회(Intercultural Mission Church)'에서 '시인과 촌장'으로 널리 알려졌던 음유시인 '가시나무' 작시/작곡자인 하덕규 목사를 초청해 찬양과 더불어 간증 집회가 있었다. 가시나무 노랫말이 좋아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6월 30일(일)에 남편과 친구 부부들과 함께 메인으로 2박 3일 <부부골프>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기에 참석이 어려울까 염려가 되었다. 다행히도 토요일 저녁에는 다녀올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조용한 가운데 차분한 목소리의 하덕규 목사의 인사가 있었다.

첫 노래는 '사랑해요'라고 쓴다. 이 노래의 노랫말도 곱지만, 삶 속에 깊이 녹아 있는 애기들을 보석처럼 꺼내어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시절이 어려울 때라 삶이 고달프지만, 어린아이들의 천진스러운 웃음과 눈망울 속 말간 세상을 보신 모양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이마에도 '사랑해요'라고 쓰고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나그네의 늘어진 어깨에도 '사랑해요'라고 쓴다고 말이다. 동시처럼 맑고 청아한 짙막한 시어들이 속깊은 여운은 가슴속 깊은 영혼의 샘터에 동심원을 그리며며

가시나무 / 하덕규(작시/작곡)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설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설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갈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설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찢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설 곳 없네

칠을 내 속에 머물러 나를 울렁이게 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작은 기타 음으로 시작되는 '가시나무'의 노래 첫 가사이다. 가끔 이 노래의 제목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들었던 노래이다. 물론 미국에 살았던 내게 그 노래를 그리 접할 기회가 없었지만 15여 년 전쯤이었을까 싶다. 한국을 방문해 <명상테라피> 그룹에 참여 며칠 공부를 할 때였다. 그 수업 시작의 날과 끝나는 날까지 이 '가시나무' 노래를 수십 번 들려주었던 기억이다. 그래서 더욱이 '가시나무' 노랫말에 가슴이 먹먹해질 만큼 내 영혼 깊이 박힌 영혼의 숲 같은 느낌으로 남아있다.

하덕규 목사는 이날 기타와 연주 노래와 찬양 간증 집회에서 '가시나무'를 쓰게 된 이야기를 들려준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지 3년쯤 되었을 때, 내 속이 너무도 흰히 보이는 것 같았다고 한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안의 죄성을 내가 어찌지 못하는 것을 알았을 때의 그 괴로움을 밖에 있는 숲을 보면서 그리고 내 안을 보면서 깊은 생각과 마주했다고 한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가시나무와 같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가시에 찢리면서 가시를 뽑아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셨다고 말이다." '내 안의 죄성'이 바로 '가시'라고 말이다.

'가시나무' 노래는 가시나무 덩굴 속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이 떠올라 곡을 쓰기 시작한

지 30분 안에 곡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 곡을 내게 주셨다."고 간증하는 것이다. 노랫말이 어찌나 좋던지 간증 집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유튜브에 있는 '가시나무' 노래를 다시 찾아 들었다. 그리고 하목사는 9년 전 '위암' 진단을 받았는데, 믿기지 않았지만 2~3기 정도였다고 한다. 병원의 진단을 받고 온 남편에게 묻는 아내에게 "내가 암이래!" 라고 얘기를 했더니 평평 울더라. 우는 아내를 다독이며 몇 년만 무병하면 관장을 거라고 달래주었다고 한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것들을 너무 많이 사랑했다."고 그는 간증한다. 그저 '선물'만을 기다리고 좋아했다고 말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보다는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선물만 좋아했다고 말이다. 하 목사의 간증은 나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 필요에 따라 치장하는 악세서리처럼 여기는 것은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설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귀한 간증을 통해 내 속의 깊은 나를 들여다본 소중한 시간이었다.



비누 (위키미디어)

한담객설閑談客說: 계면활성제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흐르는 물에
아낌없이 게워낼 줄을 안다.
(비누, 강초선)

계면활성제 성질이 재미있다. 비누 말이다. 비누는 유성油性和 수성水性을 한몸에 갖고 있다. 그렇기에, 비누가 기름때를 만나면 유성이 발동한다. 기름방울을 비누가 포위해서 감싸 안는 거다. 한편, 머리부분은 수성인지만 쉽게 물과 섞인다. 기름기 때를 물로 제거하는 방법이다. 기름기는 기름기와 뭉치고 물기는 물기와 섞인다.

한국은 좌와 우도 틈새가 넓은가 한다. 북한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미국에선 자기쪽에 붙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도 손을 벌려

북한은 물론, 한국까지 끌어안으려 한다. 차라리 겁박이라 해야 할까. 한국은 계면활성제성 비누가 되어야 할 지경인게다. 보통 비누만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터. 비누향도 깊고 넓어야겠다. 비누는 제품이 녹아야 하는 건 문제다. 다 녹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했다. 대단한 환영인파가 동원되었다고도 했다. 열렬히 환영했던 모양이다. 역시 까리까리 뭉친다. 이제 중국은 북한과 뭉치는 걸 넘어섰고, 아예 감싸 안을 모양새이다. 중국은 제품을 녹이기는 하는 건가? 그렇지 않을 게다. 비누향내가 오히려 뻤다.

그 둘이 한몸이 될지니라 (마가 10:8)

비누엔 향료를 넣는다. 비누향이라 한다. 소설 첫구절에 나온다. '그에게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 (강신재, 젊은 느티나무 첫구절). 질 좋은 비누에선 진한 비누향이 나는 거다. 냄새는 싱그러운데, 미제 비누와 한국산 비누 냄새는 다르다. 식기食器는 향내나는 비누로 닦지 않는다.

기름때는 물만으로 닦이지 않는다. 비누칠을 해야 한다. 물과 기름이란 말처럼, 서로 섞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적에 비누를 계면활

성제界面活性劑라 한다. 한자漢字말이 어렵기도 하다. 중학교적 물상시간에 배우기는 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비누는 역시 비누다.

...
뜬금 없는 거품일지라도
오래 전
세상 눈뜨기 전부터 키워온
제품의 향기를

보스톤 **코리아**
www.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이제 인터넷 신문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이메일 주소 혹은 카카오톡 아이디를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온라인 신문을
직접 발송해 드립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보스톤코리아
기사를 확인하세요!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534) 은퇴자금 백만 달러

미국에 이민을 온 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어느새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건강도 옛날 같지 않은데 나이는 벌써 50~60이다.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노후대책으로 마련한 돈도 거의 없다. 은퇴 후 노후 생활이 30년이라고 하는데 걱정이 태산 같다. 남들이 말하는 “은퇴할 때 백만 불” 은 나에게겐 먼 나라 이야기 같다.

노후자금 백만 불을 저축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지만 미국에 이민 와서 생활하는 우리에게겐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다. 늦은 나이에 노후자금 백만 불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계획을 실행하는가에 달려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나이 50에 일 년 봉급이 \$80,000에 매년 2%씩 봉급이 인상되고 투자한 돈이 6% 수익을 만든다고 가정하며 봉급

의 30%를 매년 투자하면 20년 후에 노후자금 백만 불을 만들 수 있다.

여기서 실행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은 봉급의 30%를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봉급 30% 투자에서 절반으로 줄여 15%를 투자한다. 수익률은 같은 6%라 계산하면 나이가 65살일 때 \$320,000이 된다. 투자를 68 때까지 계속 투자하면 백만 불의 절반인 \$530,000으로 불어난다.

봉급의 20%를 저축한다면 20년 후 약 \$700,000이 노후자금으로 마련될 수 있다. ‘은퇴할 때 백만 불’ 에서 부족한 금액은 노후연금(Social Security)으로 보충될 수 있다. 위의 예로 나이 50이고 봉급이 \$80,000이라면 나이가 65일 때 노후연금이 매년 약 \$25,000 그리고 70일 때는 \$36,000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 사람들은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100% 맞는 말은 아니다.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어떤 분이 65세로 은퇴할 때 백만 달러가 필요하다면 수익률을 8%로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투자하면 된다. 나이가 25 때 시작하면 매달 \$286, 35살이면 \$671, 45살이면 \$1,698, 55살이면 \$5,466씩 투자해야 한다.

노후자금 마련을 일찍 시작하면 적은 돈으로 목돈을 어려움 없이 만들 수 있다. 복리(Compound Interest)효과 때문이다. 천재의 대명사인 아인슈타인에게 질문했다.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냐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이 “특수상대성 이론” 내지는 “핵 이론” 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인슈타인의 대답은 놀랍게도,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복리” 라고 말했다.

나이가 50이라 “목돈 마련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라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최근 미국이나 한국이나 평균 생명수명(Life Expectancy)은 점점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60세에 은퇴하면 최소한 30년은 더 산다고 생각하고 은퇴계획을 세워야 한다. 은퇴자금은 다 소비했는데 여러분이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은퇴 후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시작하면 그만큼 도움이 된다. 그런데 노후자금은 당장 해야 할 일이 아니기에 하루하루 미루게 된다. 은퇴하며 돈을 너무 많이 모았다고 불평하는 분 지난 30년 동안 한 분도 만나보지 못했다. 대부분이 은퇴자금이 적어서 후회한다. 은퇴준비 결정을 미루지 말고 바로 실행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82 화랑세기花郎世紀, 12세 풍월주風月主 보리공菩提公(1)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저술하여 신라 불교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는 불교 서적의 찬술 뿐만 아니라 도덕과 사회윤리에도 힘써 화랑도와 젊은이들의 실천덕목으로 '세속오계世俗五戒 172)를 제시하였다. 삼국유사에는 그의 속

명이 박씨로 나온다.

573년에 태어난 보리공은 어리때부터 재능이 풍부하였으며 큰 뜻을 가지고 있었다. 자라면서 형인 원광과 함께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에, 이미 원광이 자신들의 진로를 말하고 있었다. 13세에 승려가 된 원광은 동생 보리에게는 화랑도가 되어서 가문을 빛내고 나라를 평안케 하라 권유하였다. 보리는 이미 13세에 전방화랑이 되어있었다. 이 때는 하종이 전방대화랑이었고, 미생이 36세의 나이로 늦깎이로 10세 풍월주가 된 585년이였다. 화랑도를 이끄는 풍월주 미생이 그의 자질을 인정하고 "너는 나보다 낫다,汝勝于我也" 라는 부러움과 함께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보리의 부모는 이화공과 숙명공주이다. 아버지 이화공은 4세 풍월주를 역임하였고 그의 할아버지는 1세 풍월주를 지낸 위화랑이다. 위화랑의 부모는 섬신공(또는 염신공)과 벽아부인이다. 벽아부인은 신라에서 당시 가장 아름다웠다는 벽화의 어머니인데, 제21대 소지왕(비처왕)이 변방 날이군(현 경북 영주)으로 순시를 갔다가 그 지역 파로가 바친 딸 벽화의 아름다움을 못 잊고 몇 차례 잡행을 하다가 왕궁으로 데려올 때 어머니 벽아도 함께 데려와서 후궁으로 삼았

다가 섬신공에게 주었다. 499년에서 500년 초에 일어난 사건들이다. 어머니 숙명공주는 태종과 지소태후의 딸이다. 세종의 동부동복 누이이다. 자세한 내용은 6세 풍월주 세종전과 11세 풍월주 하종전에서 다루었으므로 생략한다.

화랑세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보리는 계사년에 태어났고, 신해년에 화랑의 주가 되었다.] 12세 보리공은 이화공의 차자 次子이다. 어머니는 숙명공주淑明公主인데 곧 지소태후의 딸이다. 세종공과 한배의 손윗누이이다. 숙명공주가 꿈에 황색의 신록神鹿을 보고 공을 낳았다. 나면서 보통 사람보다 뛰어났고 큰 뜻을 가졌다. 자람에 따라 만행인 원광법사와 더불어 배움에 힘써 게으르지 않았다. 원광이 일찍이 가르쳐 말하기를 “나는 부처가 되고 너는 선仙이 되면 우리 집과 나라를 평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했다. 보리공은 이에 하종공의 문하에 나아가 그 당도에 소속되었다. 공은 하종공보다 9살이 적었는데, 감정과 생각이 서로 투합하여 같은 배에서 출생한 것과 다름이 없었다. 공의 어머니 숙명공주는 효성과 우애가 하늘로부터 타고나서, 세종을 어린아이처럼 사랑했고, 세종공은 공주를 태후처럼 모셨다. 미실이 입궁하고 세종이 출정하자, 숙명공주가 미실과 더불어 화합하지 않았으나, 하종공은 곧 공주의 조카인 까닭에 공주가 특별히 아들처럼 사랑했다.]

보리공은 573년에 출생하였고, 591년에 12세 풍월주의 위에 올랐다. 561년 사다함이 이사부를 따라 귀당비장으로 대가야 정벌을 출정하였

을때 미실이 세종의 부인이 되어 입궁하였다. 한편 지소태후는 진흥왕의 비 사도를 내치고 자신의 딸 숙명을 왕비로 책봉하려고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이 계획을 미실이 이모인 사도왕후에게 고했고, 이에 노한 지소태후는 미실을 출궁시켰다. 그리고 진종전군의 딸 용명을 세종의 정비로 삼았다. 하지만 세종은 미실을 잊지 못하고 그만 병이 들었다. 이에 어머니 지소는 결국 미실을 재입궁시켰다. 미실은 정비 용명을 밀어내고 세종의 정비가 되었다. 하지만 곧 진흥왕이 미실을 총애하였고, 세종은 출정의 명을 받아 국경의 변방으로 돌면서 국방의 임무를 다하였다. 사다함이 5세 풍월주의 임무를 마치고 세종에게로 그 위가 이어졌지만 당시 모든 화랑은 미실이 원화가 되어서 지휘하였다.

172) 세속오계는 사군이충事君以忠, 사친이효事親以孝, 교우이신交友以信, 임전무퇴臨戰無退, 살생유택殺生有擇이다. 귀신과 추함이 배움을 청하였기에 준 다섯가지의 수신계修身戒로 삶의 근본지침이 되게하였다. 이는 곧 화랑도의 정신적/윤리적 바탕 및 실천이념이 되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www.gch.go.kr)



8만여편의 한국방송 및 최신영화
내 안자로 골라보는 합법 IPTV

tv... Since 2008
2008년부터 안정적인 합법권리료 서비스업
디자이너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유익이기에 우리 하레보



티보플레이 **TBO** 1년에 단 한번

1+1 효도이벤트

우리집에 티보플레이 설치하면 부모님댁에는 무료!
사랑하는 부모님께 티보플레이로
즐거움을 선물하세요

우리집에 설치
첫번째 티보플레이 ~~\$34.99~~ \$29.99

부모님댁 설치
두번째 티보플레이 ~~\$34.99~~ FREE

2번째 기기는 기기값만 \$55 (이용료 1년 면제) 1년 이후 \$9.99

1년간 \$1 유료 영화도 모두 무료

5월1일 ~ 6월 30일 (단 두달간)

우리집에 티보플레이 설치하면 부모님댁에는 무료! 티보플레이 1+1 효도이벤트



더 작아지고 강력해진 NEW 티보플레이

- ♥ 북미주 전역을 커버하는 판매/AS 딜러 네트워크
- 🕒 원하는 프로그램 원하는 시간에 보는 서비스
- 📺 마음 놓고 보는 합법 방송
- 🖱️ 리모콘 하나로 컴퓨터 없이도 쉬운 시청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채널
티보에 모두 다 있다

TV켜고 리모콘누르면 끝!

컴퓨터 조작이 서투르신 부모님
이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하나도
부모님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가요 바둑 인기유튜브
강의 종교/절교 드라마
미주로컬라디오 다큐멘터리
시사 예능 스포츠 뉴스



티보플레이 지역별 가입안내

- 서부** 시애틀 (KTR 253-835-1004) 북가주 (Sky Comm) 408-257-2525 샌디에고 (Ace Tech) 619-316-4182 LA 교차로 (Kyochan) 213-383-1236
- 중부** 시카고 (교차로) 847-391-4112 필라델피아 (News Korea) 872-247-9111 샌안토니오 (코리안 마켓) 210-445-1535 덴버 (아리랑 마켓) 303-756-1743
- 동부** 애틀랜타 (SND Tech LLC) 678-584-6514 오하이오 (주강필라) 267-230-7773 버지니아 (NAV Computer) 709-942-6822
보스턴 (The Boston Korea) 617-949-1766 NY 교차로 (Kyochan) 917-685-9665 New York, New Jersey 917-488-1072
- 캐나다** 토론토 (경향미디어) 905-832-3333 밴쿠버 (교차로) 604-420-1068

상담 및 가입문의 무료전화

617-949-1766

LA 가입/문의 **213-999-7090**

본사주소 3435 Wilshire Blvd. #2915, LA, CA 90010

정준기 원장 교육 컬럼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바뀐 미국 명문 보딩 학교 진학 전략(1)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지난 몇년간 많은 미국 명문 보딩 학교들의 입학 성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가장 큰 문제는 영어를 얼마나 말하고 쓸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대체적으로 명문 사립 학교들은 학교내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다음 단계는 준비만 잘하면 된다. 물론 학생들이 얼마나 일찍 자신의 특기와 재능을 개발하고, 우수한 성적을 유지 하느냐가 관건이 되기도 하다.

1. 한국 공립 학교에서 지원하는 경우

가장 입학이 까다로운 경우이다. 모든 기준이 엄하게 적용된다. 일단 영어적인 능력, 학업 능력, 보딩 생활 가능성을 살핀 후 학생의 교외활동 능력 순서로 평가를 하게 될것이다. 영어적인 능력은 인터뷰와 토플, SSAT 점수를 유심히 살피고 학생 원서상 에세이와 SSAT에 있는 에세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

대부분 입학허가된 경우는 정말 우수한 아카데미 능력 예를 들면 수학/과학 경시 입상자 또는 훌륭한 운동 능력 (리쿠르트까지 고려 될수 있는 경우), 훌륭한 음악적인 재능이 보인다. 이런 많은 명문 보딩 학교에서 관심을 보일 거라 생각이 된다. 만약 이런 경우가 아니면 미국 최고 보딩 합격이 무척 힘들다. 물론 학교를 낮추어 지원한다면 더 많은 옵션이 있다.

이런 경우 사전에 준비해야 할 점은 가능하면 매 여름 방학 동안 미국 어학연수, 특별 관심 분야 서머 참여 등을 통해 보딩 생활 경험과 미국 학교 아카데미 경험을 쌓아 미국 어느 학교에서 공부해도 충분히 준비가 된 학생이란 점을 보여 주면 조금은 더 유리한 조건에서 학교 선택의 폭이 넓어 질것이다. 사전에 미리 모든 점을 준비한다면 좋지만 많은 경우가 1-2년 사이 급격히 결정하여 미국 최고 보딩 학교를 고려하면서 시행 착오를 많이 한다.

일단 미국 보딩 학교들을 투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어 돌이킬수 없는 상황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추후 입학 대기자가 된 후에 모든 조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충분히 아이를 위해 투자를 하고 계획을 세워 준비 한다면 좋은 결

과를 얻을 수 있다.

2. 한국내 국제 학교 또는 외국인 학교에서 지원 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영어가 많이 해결이 된 상황이다. 이 경우 많은 학생들이 방과후 학원과 과외를 통해 학교 성적을 향상 시키는 경우가 많고 또한 다른 재능 조차도 부모님의 네트워크와 노력을 통해 성취 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이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물론 이런 스펙을 통해 종종 명문 학교 진학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 생활은 만족하지만 학업은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 걱정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사전에 혼자 독립 할수 있는 분위기와 능력을 미리 키워 준다면 즐겁게 보딩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체적으로 학업, 교외 활동 등은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준비가 된다. 그러나 음악, 운동, 리더쉽, 그리고 서머 부분이 많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보다 깊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운동은 적어도 하나 정도는 미국 고등학교에서 Varsity를 할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고, 음악은 수준 높은 곡을 연주 할 수 있게 준비 하면서 좋은 음악 캠프 등을 참여하는 것이 유리 하다. 동시에 영어 작문 능력을 향상 시키고 제 2의 외국어를 미리 수강 하거나 준비 하는 것을 추천 한다.

이런 경우는 많은 준비가 되어있으나 학교의 성향과 학생의 성향을 잘 모르고 명성만 보고 학교를 선택을 하면서 이 정도의 학교가 되지 않으면 유학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케이스이다. 솔직히 너무 무책임하고 무지한 부모의 사고라고 생각 한다. 지원하는 학교의 학업 특징, 학교 시스템, 지역, 사이즈,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회들을 충분히 제공되고 이중 적어도 우리 아이가 50%이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정도가 되는 학교를 찾고, 그 학교에서 최선을 다 하면 추후 최고 명문 대학 진학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학교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낮추어야만 아이가 보딩 학교에서 성공 할 수 있다. 학생 스스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배양해주고 그걸 보딩 학교에서 응용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미국 공립 학교에서 지원하는 경우

이 경우는 많은 상황이 존재한다. 부모님의 이혼, 학업이 도전적이지 못한 경우, 필요한 부분을 학교가 제공 하지 못하는 경우, 더 좋은 조건에서 다양성을 갖춘 경험을 추구 하는 경우, 그리고 재정 보조를 받아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교육 시킬 원하는 경우등 많은 케이스가 있다. 일반화를 시켜 이야기해보기로 하자.

대체적으로 공립 학교에서 많은 부분을 제공 받아 진행이 되고 있고, 학교 밖을 통해 추가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명문 보딩을 고려 하는 가장 큰 이유는 One Stop 교육 즉 더 이상 학교 밖에서 다양한 활동을 추구 하기보다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 할려고 한 점과 다양한 배경 출신의 학생들이 최고 수준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통해 좋은 교육을 받을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거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많은 동창들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미국 공립학교는 지역에 따라 학업 수준의 편차가 있고, 교외 활동 부분도 제한적으로 제공을 받기 때문에 간혹 학교 주변 타운(Town)팀 소속으로 운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을 사립 학교에 가서 해결 하려고 하는 점들이 많이 있다. 사립 학교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는 모두에게 기회가 제공이 되고 매주 타학교들과 적어도 두번 게임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어찌 보면 공립 학교 출신들이 사립 학교 진학을 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경쟁 또한 가장 심하고 기회 또한 높다.

공립 학생들이 준비 해야 할 점은 우수한 학점과 도전적인 과목 수강, 특화 될 수 있는 재능 발견, 리더십 경험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사전에 서머를 통한 보딩 경험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공립 출신들중 많은 학생들이 재정보조를 신청하기 때문에 사전에 재정 보조가 입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 인지 여부도 살펴보는게 중요하다. 재정보조는 각학교의 웹사이트에 가면 매년 어느 정도 보조가 되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필요하다. 왜 공립에서 사립 학교를 가려고 하는지와 무엇을 성취하고 학교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한 관건 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 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위튼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미국, 캐나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HURAM(1-844-364-8726)
Tel : 0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보스톤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49-1766

협력업체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로마제국이나 몽골제국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파워를 행사하고 있는 현대판 제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많은 분야에서 가히 세계적 규모를 자랑한다. 스포츠가 그렇고, 비즈니스가 그렇고 군사력이 그렇다. 특히 미국의 정신이라 자부하는 매사추세츠주에는 네 개의 자부심 가득한 스포츠 팀이 있다. 야구팀인 Red Sox, 농구팀인 Celtics, 아이스하키팀인 Bruins, 미식축구팀인 New England Patriots가 그들이다.

자부심 강하기로 유명한 뉴잉글랜드 지역에 스포트랜딩하려면 이들 스포츠 팀 중 적어도 한 팀 정도는 잘 알아두어야 한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곳 사람들은 이 중 어느 한 팀의 열성 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스톤은 약간 과장하자면 민주당의 도시이고 아일랜드 후예들의 도시이다.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Celtics가 녹색 휘장을 쓰고, 이름이 Celtics이며, 클로버 문장을 쓰는 것을 봐도 이러한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4월에 있는 패트릭 성인의 날 (St. Patrick's Day)이 되면 보스톤의 온 거리는 녹색과 흰색으로 물든다. 그만큼 아일랜드계가 많다는 방증이다. 정치인을 보아도 존 케네디 대통령, 오랫동안 하원의장을 했던 팀 오닐을 비롯해 레이건, 클린턴,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월트 디즈니, 작가 빌 브라이슨, 유진 오닐, 코미디언 코난 오브라이언 등 이루 헤

아릴 수 없이 많다. 버락 오바마의 외할머니를 비롯해서 40여명의 역대 대통령들 중 20명이 부계나 모계 중에 아일랜드계 조상을 두고 있다.

5세기경 파송되어 아일랜드를 최초의 가톨릭 국가로 만든 업적으로 아일랜드의 수호성인으로 숭앙될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종파를 가리지 않고 여러 나라에서 성인으로 숭앙 받는 패트릭 신부를 기념하는 St. Patrick's Day는 미국, 특히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기념일 중의 하나이다.

Patrick 신부가 아일랜드 기독교의 수호성인이 되었듯이 그의 이름 Patrick 자체가 '아버지'란 뜻의 patri-에서 유래한다. 라틴어 pater의 복수형인 patres에서 형용사형인 patricius가 파생되었고, 여기서 Patrick이란 고유명사가 만들어졌다. 그러니 보스톤의 미식축구팀 Patriots는 참으로 송고한 뜻을 가진 팀이 아닐 수 없다.

중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던 시절 필자는 patriot이 '애국자'란 뜻을 암기하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있다. patriot과 애국자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도 찾을 수 없었기에 이 단어를 암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다. 하지만 pater가 '아버지'를 의미하는 라틴어임을 알게 된 후에는 여러 관련된 단어들을 고구마 줄기처럼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pater는 '아버지'이고, patris는 아버지의 나라 즉 '조국'이란 뜻이다. 한자를 공부하던 시절 사자성어와 그에 따른 이야기들을 떠올렸던 것

처럼, 어원은 주어진 단어에 풍부한 표정과 스토리텔링을 가져다준다.

주변의 미국인 지인들이 필자에게 몇 가지 언어를 구사하느냐고 묻곤 한다. 필자는 그들에게 "I speak my mother tongue and my father tongue." mother tongue도 모국어이고 father tongue도 모국어니까 난 내 모국어 밖에 구사하지 못한다는 말장난이다. 영어 fatherk 라틴어 pater에서 왔다는 말은 이전에 몇 번 했었다. 라틴어 /p/가 게르만어에서 /f/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pater에서 파생된 patriarch는 '가장, 족장'이란 뜻이다. 아버지가 통솔하는 집단이 patria 즉 '가족, 부족'이고 그 수장

이 patriarch인 것이다.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이나 가산이란 뜻에서 파생된 patrimony는 '세습재산, 유전'이란 뜻이다. patrimony가 있으면 matrimony도 있다. mater가 '어머니'를 뜻하는 라틴어이고 matrimony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한다는 의미에서 '결혼, 부부관계'란 뜻을 가진다. 접미사 -mony는 애석하게도 돈과는 상관없고 '상태, 행위'를 의미한다. 우연히도 alimony는 '별거수당, 이혼수당'이란 뜻인데 접두사 al-이 '영양을 주다, 부양하다'란 뜻이기 때문이다. alimony가 일정기간 계속해서 지급해야 되는 돈이라면 palimony는 일시에 지급하는 '이별 위자료'이다.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새로운 100년의 주인공은 국민입니다



1949 7.1 기본법 및 대한민국헌정회 수립 1945 8.15 광복 1987 4.13 재집 1988 5.16 민주화운동 1987 5.10 민주회복 1990 8.27 퇴원하기 국비 2008 3.11 천문 100주년 2019 4.11 대한민국헌정회 수립 100주년

보스톤코리아

보스톤 한인업소록



구글에서 찾을 수 없는 한인업소들의 알짜 정보를 담은 한인업소록을 발간

보스톤의 모든 한인 업소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2013년 보스토니안 발행이후, 6년만에 보스톤 한인업소록을 개정해서 발간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9년 보스톤 한인업소록에는 보스톤 지역뿐만 아니라, 로드 아일랜드 및 뉴햄프셔 등 뉴잉글랜드 지역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를 망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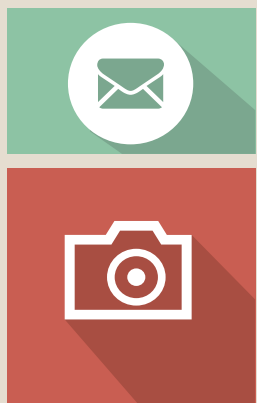
이 디지털 한인업소록은 카톡, 페이스북 등의 SNS와 이메일 등으로 고객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광고 문의 및 업소등록

광고 문의 및 업소등록을 원하시면 :
upsorok@bostonkorea.com으로
이메일하세요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1.800.867.9000

Cell 508.962.2689
Tel 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 kayleebrokers@aol.com



- * 상가 건물 전문-투자, R&D, 콘도, 아파트 건물
- * 상가 건물 용자, 비즈니스 용자 알선
- * 1031 Exchange (상가건물 세금 혜택) 서비스
- *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 * E2 바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 상담
- * 다양한 리스팅 많이 보유

보스톤 북쪽, 런드로멧 연매상: \$230,000
매매가격:\$199,000

보스톤 남쪽 런드로멧 & 건물 연매상 \$600,000
비즈니스와 건물 함께 매매 \$1.5M

로드아일랜드 성업중인 한국 식당
연매상 \$2.1M, 매매가격 \$800k
플리커 면허증, 72석, 대학교 근처

보스톤 북쪽: 연매상: \$210,000, 퍼크 쓰지 않는 세탁 기계, 안전한 매상,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 + 사쓰유닛, 연매상 \$444,000
최고의 위치, 꾸준한 고객들, 30+ 년이상 존재

렉싱턴 근교 세탁소 드랍 연매상 \$165,000
40년+ 운영, 소유자건강 문제, 공장소유자 환영

우스터 지역: 일중식 식당, 연매상:\$500,000,
풀 리커 면허증. 퍼터백 야구팀이 RI 주에서 이전. 우스터 지역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음

보스톤 남쪽, 보스톤에서 15분 거리, 세탁소 + 사쓰유닛, 연매상:\$850,000, 새 장비 no perc 쓰는 세탁기계

보스톤 서쪽 풀 플랜트 & 셔츠 기계
최고의 위치, 대형 플라자, 40년이상 존재
연매상: \$390,000+

보스톤 남쪽: 성업적인 드랍 세탁소.
연매상:\$233,000, 매해 매상 증가

보스톤 북쪽 풀 플랜트 연매상 \$120,000+
고급 동네, 좋은 매매가격, 처음 사업 시작하는 바이어 환영. 오우너 파이낸스 고려

보스톤 북쪽 동양식당과 부동산 (오파스 콘도)
식당 연매상 \$725k, 플리커 면허증, 고급 동네
매매가격 \$2M, 셀러 은퇴

보스톤 근교: 연매상: \$210,000, 퍼크 쓰지 않는 세탁 기계 교체 (2018), 좋은 위치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 + 사쓰유닛
연매상: \$265,000, 고급 동네, 좋은 위치
소유자 은퇴

프래밍햄 지역: 런드로멧, 연매상 \$250,000
소유자 100% 부재중 운영, 새 기계들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2019
LEE SUNHEE CONCERT

climax

Mohegan Sun Arena

07.27.2019 Sat. 8PM

\$250/ \$200/ \$150/ \$120/ \$90

Tickets: (718) 358-1651 | info@jhlenterprise.com

Offline Ticket Sale 한양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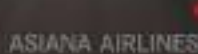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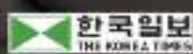
Flushing NY / Hicksville NY /
Ridgefield NJ

Online Ticket Sale **HOT DEAL**
http://hotdeal.koreadaily.com
Tel. (213) 784-4628

Shuttle Bus Tel: (888) 508-9793

Presented by JHL Enterprise

jhlenterprise jhlenterpriseNY



ASIAN HOTLINE: 877.999.9977 | MOHEGANSUN.COM/888

